

## 긴축안 거부한 그리스 ‘그렉시트’에 한발 더...

〈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그리스 아테네의 신타그마 광장에 모인 '긴축안 반대' 지지자들이 5일(현지시간)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자신들의 승리가 확정된 후 그리스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그리스는 이날 '국제 채권단의 긴축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치렀다. 국민투표에서는 반대가 61.3%로 찬성(38.7%)을 크게 앞질렀다. 아테네/블룸버그

### 국민투표서 '채권단 긴축안 반대' 61.3%로 압도적 우위 치프라스 총리 "유로존 탈퇴 아니다...새 협상 나설 것"

그리스 국민들이 국제 채권단의 긴축 제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를 선택했다. 이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도 불사한 결정으로, 이에 따라 그리스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치러진 그리스 국민투표의 질문은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6월 25일 유로 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제안한 협상안을 수용하는가"였다. 국민투표 개표가 끝난 결과 '반대(OXI)'가 61.3%로, 38.7%에 그친 '찬성(NAI)'을 크게 웃돌았다.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밤 대국민 TV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그는 "그리스는 정답을 맞았다. 이번 투표에선 승자도 패자도 없다.

국민은 단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리스는 내일(6일)부터 협상 테이블로 돌아간다"며 "채무 탕감과 상환 기한 20년 연기 등 그리스 해법을 제시했던 국제 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라 채무 탕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이기면 국제 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협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 투표 반대가 유럽과의 결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과 독일 국제 가격이 오르는 등 그렉시트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는 분위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일 파리로 건너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그리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하고 7일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의 소집을

촉구했다.  
관건은 국제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거절한 그리스가 지원을 계속 받아 디폴트(채무불이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다. 그리스는 현재 은행 문을 닫고 해외송금을 제한하는 등 자본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원이 없다면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으로 인해 은행들이 연쇄 부도를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6일 예정된 ECB 회의에서 긴급 유동성 지원(ELA) 한도가 동결돼 그리스가 7일 이후에도 당분간 자본통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는 이미 지난달 30일 IMF에 대한 채무 약 16억 유로(약 1조9900억 원)를 상환하지 않았고, 이날에도 ECB 채무 약 35억 유로의 만기가 돌아온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데 실패해 차용증서인 'IOU'를 발행하면 사실상 유로화를 포기하는 그렉시트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6일 오전 8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비공개로 개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점검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정준양, 전정도 형제 비리 알고도 묵살”

〈전 포스코 회장〉

성진지오택 해외사업비 횡령 포스코 감사에서 비리 포착 관련 임원 경정계로 마무리  
檢 '경영진에 보고' 자료 확보



오택의 해외사업 자금 횡령에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포스코는 당시 이 같은 비리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임원

비자금 조성의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정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영도 회장은 언론을 통해 "동생과는 집안일로 만났지만 회사일로 거래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정도 회장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김보씨를 경정계하는 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 검사)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62) 울산상의 회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 정도경영실(감사)은 지난 2011년 말~2012년 초 전영도·전영도 회장의 비리를 제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도경영실은 당시 제보를 바탕으로 성진지오택(현 포스코플랜텍)의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씨 형제의 해외사업 자금 횡령, 사업비 유용 등의 비리를 포착했다. 전영도 회장이 그가 소유한 일진그룹의 미국 법인을 통해 성진지

김보씨를 경정계하는 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 검사)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62) 울산상의 회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정도경영실의 최초 전무는 박모 전 부사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했다. 박 전 부사장은 이를 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때문에 전씨 형제의 비리가 묵살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직접 개입했을 것 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한권 검찰의 포스코 수사는 금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시절 포스코의 인수·합병(M&A)과 감사에 관련한 임원을 줄소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포스코의 현 임원진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만간 지난 3일 압수수색한 포스코의 협력사 동양종합건설의 배성모(60)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종합건설은 포스코건설과 해외사업을 함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복지부 '의료수출 계획' 발표 혼쭐

“메르스로 무너진 공공의료 체계부터 바로잡아라” 성토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아직 종식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혀 반쪽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공공의료 체계가 메르스에 무너져 국내 의료시스템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 의료서비스를 수출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 수출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의료계·학계·법조계·금융계 등 의료 진출 전문가 60명으로부터 자문단을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동남아, CIS, 미주(중남미), 중동 등 5개 국가별 분과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수출 지원(컨설팅 등) △법·제도 개선 △전문인력 진출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총 9개 전문분과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후 자문단은 분과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작성, 자문단 전체회의(포럼)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최종 확정한다. 전체회의(포럼)에는 자문위원 외에도 협

회, 의료기관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각 지역의 진출 전략과 법·제도·전문인력 진출 등의 핵심적 이슈 사항을 오는 16일부터 매주 다뤄 의료 수출을 희망하는 관계자들이 핀포인트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하반기에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 이후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것은 해외 의료서비스 수출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료정책의 전환과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이라고 꼬집었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로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이때 복지부는 의료 산업을 연장선으로 보고 또 의료 수출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 삼성 'TAI' 8일 지급

‘보너스 잔치’ 열릴까

삼성그룹이 이달 8일 각 계열사에 상반기 성과급인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지급한다. TAI는 상·하반기에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회사와 사업부 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8일 평가 등급에 따라 각 계열사에 TAI를 지급한다. 이번에는 금융계열사 B등급 등 상당수 계열사가 100% 수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실적 반등에 성공했지만 올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 수준의 성과급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았을 때 상당수 사업부가 100%의 보너스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IM(IT·모바일), CE(소비자 가전), DS(부품)부문 등 사업 부문별, 부문 내 사업부별 성과급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하강 국면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한 DS부문의 반도체사업부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gutiy@

##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가슴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한화케미칼 임직원들은 한 가족과도 같은 협력업체 분들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에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고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향후 그 어떤 결과에도 책임있는 모습으로 사태 수습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희 한화케미칼은 이번 사고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모든 작업현장을 근본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쇠신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화케미칼(주)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

# “합병후 주가 오른다면서 반대... ISS, 주주 혼란만 키워”

## 삼성 '합병반대 보고서' 조목조목 반박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 ISS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ISS 보고서 자체가 오류투성이로 잘못된 데이터가 많다는 게 삼성측의 지적이다. 삼성은 ISS가 주장한 항목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보고서가 주요 명칭의 표기에 오류가 있는 등 기본적인 신뢰성조차 의심된다는 표현도 아끼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ISS가 지난 3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 권고를 낸 지 이틀 뒤인 5일 "ISS 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주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ISS 보고서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ISS 보고서는 여러 부분에서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못하고, 일부는 엘리엇이 주장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ISS는 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22.6%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미래 불특정 시점에 삼성물산 주가가 오를 걸로 전망되니 합병에 반대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무엇보다 ISS가 대한민국 법 규정상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이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불공정하다고 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물산은 "ISS가 상장 계열사 보유 지분의 디스카운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삼성물산 건설 및 사사부문의 기업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하는 등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며 "제일모직

제일모직 '고평가' 물산 '저평가' 주장 1대 0.95 터무니없는 합병비율 산출 합병 발표후 주가 ↑...효과 인정하며 "시너지 불확실" 엘리엇 주장만 답습 보고서는 주요 명칭 표기조차 틀려 객관성 부족...기본적 신뢰성도 의심

**ISS는 어떤 기관?**  
ISS는 세계 최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의 자회사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찬성과 반대를 표명하고, 유료로 찬반 의견을 해외 각국의 기관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현재 전 세계 115개국 3만9000개의 자산운용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상장 이후 합병 이사회 전일까지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출해 봐도 1대 0.35~1대 0.44의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순자산가치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을 산출하더라도 ISS의 1대 0.95라는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주장**

- 1 자본시장법 상 적법한 합병비용 적용
- 2 합병 추진 배경은 회사 미래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
- 3 건설업 장기 침체에 조기 주가순자산비율 1 못미처
- 4 사업 다각화와 신사업 추진 위해 조기 합병

**엘리엇 & ISS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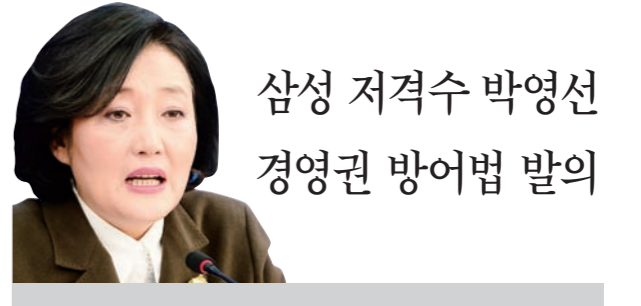
- 1 합병 계획안은 삼성물산 가치 과소 평가
- 2 합병 조건 공정하지 않아 주주 이익 반할
- 3 회사 이익배당 방법으로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 개정
- 4 주총 결의도 증권배당 결의할 수 있게 정관 개정

**미래 불특정 시점 주가 오른다면서 합병 반대 무책임**

- 5 엘리엇 주장 그대로 답습
- 6 제일모직 보유 바이오 가치 저평가
- 7 합병 후 삼성물산의 지주사 프리미엄 고려 안해
- 8 삼성물산 법인세를 보유 지분 가치 산정에 반영 안해

**합병 실제 시 22.6% 주가 하락**

- 9 삼성물산 11만원 목표주가 근거 1대 0.95 합병비율 권고
- 10 합병 발표 후 주가 상승은 시너지 긍정 평가한 것
- 11 합병 시너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부정확
- 12 삼성물산 50% 저평가, 제일모직 41% 고평가



삼성 저격수 박영선  
경영권 방어법 발의

## 경제 원활한 운영 저해 외국인 투자 제한해야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반대하며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전자, 반도체 등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인 인수 합병(M&A)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특히 '삼성 저격수'로 불려왔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외촉법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국가 안전과 공공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 보건위생이나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국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만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격성심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도 포함토록 했다.

한편 삼성물산 지분 7.12%를 매입했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하려는 삼성을 압박하기 위해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도 약 1%씩 매입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 자동차·전자·반도체 등 국내 주요기업의 경영권 적대적 인수합병 막아야 외촉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전선 넓혀나가는 엘리엇 삼성SDI·화재 지분 매입

비현실적으로, 국내의 애널리스트의 제일모직 평균 목표 주가는 17만4000원, 삼성물산 주가는 한 번도 10만원을 넘은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ISS 보고서가 합병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어서 삼성물산 주가는 14.8%, 제일모직 주가는 15% 각각 급증했다고 밝혀 ISS 스스로 합병 시너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은 ISS의 보고서가 합병의 시너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부정확하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외부 전문가의 실사와 검증 결과 합병은 2020년까지 6조원의 매출 시너지와 삼성물산의 단독 사업 수행의 경우보다 50% 이상 주당순이익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ISS는 합병 후 삼성물산이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로서 가질 수 있는 프리미엄을 전혀 고려하지 않

았다"고 비판했다.

또 "ISS가 삼성물산은 50% 저평가, 제일모직은 41% 고평가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을 통한 가치 산정으로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일모직이 보유한 바이오 사업의 가치에 대해 시장이 7조5000억원으로 평가하는 반면 ISS는 불과 1조5000억원의 가치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제일모직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엘리엇조차도 반영한 24.2%의 법인세율을 보유 지분 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부분도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은 "ISS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제시한 일반적인 국내 기업 수준을 뛰어넘는 주주 친화정책 및 거버넌스위원회와 같은 지배구조 개선 정책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보호 기자 sprdan@

### 목소리 더 커진 소액주주들

## '매직넘버 47'중 16%... 개인투자자가 성패 가른다

(삼성 합병성사 찬성 지분)

### 국민연금도 삼성 손 들어준다 해도 외인 모두 반대엔 개인 표심에 달려

ISS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6일 현재 삼성물산의 외국인 지분율은 총 33.97%에 달하는 반면, 삼성 총수 일가와 계열사가 가진 지분은 13.65%에 불과하다. 만약 외국인 주주들이 ISS의 권고를 모두 따를 경우 합병

안 결의가 쉽지 않다. 합병 결의에는 출석 주식수 3분의 2이상, 의결권 주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를 포함한 개인투자자들이 역할이 커지게 됐다. 최종적으로 '삼성물산-국민연금' 대 외국인 투자자의 대결 구도가 된다면 마지막은 개인투자자들의 선택이 합병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 예측이다.

우선 삼성물산 지분 11.21%를 유해 단일 최대 주주에 올라 있는 있는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확

실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합병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할 경우 우호 주주인 KCC까지 합쳐 삼성 측은 약 3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합병안을 통과 시키려면 70%의 주주가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6%의 지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개인투자자의 의견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명의로 주주들에게 서류를 발송해 "주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결정했고, 합병을 통해

2020년 매출 60조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부 개인투자자 중에서 합병 반대 의견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곳의 회원은 3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지분율이 낮아 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삼성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합병에 반대한다면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합병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이라며 "삼성물산이 임시주총까지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문제1. 네모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자동차에 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안 전 띠 를

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TS 교통안전공단

# “그리스 국민, 유서에 서명한 꼴”...치프라스 ‘상처뿐인 승리’

## 그리스 ‘긴축 거부’ 후폭풍

정권 재신임 불구 재협상은 가시밭길  
20일 ECB 35억 유로 채무 만기  
상환 못할 땐 ELA 중단 ‘최악위기’에

채무경감 땐 유로존 회원국 부담  
채권국, 자국민 설득 여부가 관건



5일(현지시간) 치러진 그리스 국민투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대국민 TV연설에서 “채권단에 즉각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재개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찬성을 압도했다는 결과가 나온 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그리스 국민의 투표결과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 61.3%, 찬성 38.7%로 나와 채권단의 긴축안은 부결됐다. 아테네/AFP연합뉴스

### 그리스 긴축 부결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



국제 채권단 협상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를 지지하면서 이를 줄기차게 호소해온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일단은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결국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다. 치프라스 총리의 어깨에 힘이 더 실리는 만큼 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5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전문가들은 투표 결과가 긴축안 부결로 나오자 그리스에 구제금융 재협상을 위한 가시밭길에 들어섰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라시아그룹의 무즈타바 라만 유럽연구부대표는 “그리스 국민은 현재 자신의 유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경종을 울렸다.

7일 예정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의 채무 담감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치프라스 총리가 속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은 지난 1월 정권을 잡은 이후 줄곧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당시 채무담감을 실시했던 것과 같은 ‘데자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의 재정상태는 새로운 금융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치프라스 총리는 “부채가 지속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30% 채무담감과 만기 20년 연장”이라면서 IMF 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우며 국민투표를 앞두고 ‘반대’ 지지를 호소했다. 3년 전 IMF, 유럽연합(EU) 등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 재정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금융지원과 부채담감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오는 2022년까지 그리스의 채무잔액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110% 밑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그리스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77%. IMF는 보고서를 통해 “이 상태로는 그리스의 채무가 오는 2020년까지 150%의 높은 수준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2022년(11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GDP의 3%에 달하는 대대적인 채무경감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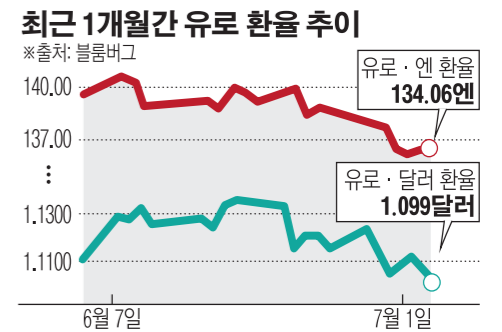
문제는 그럼에도 그리스를 유로존에 남겨두려면 채무를 추가로 담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주변 유럽 국가의 납세자들이 혈세를 더 쥐어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최대 채권국인 독일, 프랑스 등은 자국의 납세자의 반발을 의식해 채무 재조정에 반대했지만, 그리스의 채무담감 조정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리스에 대한 채무를 담감해주기로 의견이 모아지면 주요 채권국들은 자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다.

한편, 그리스는 오는 20일 또 한 번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에 35억 유로(약 4조4000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ECB는 그리스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리스는 ‘기술적 디폴트’에서 ‘실질적인 디폴트’로, 또한 그렉시트의 길로 접어들며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서지희 기자 jhsseo@

##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렉시트’ 공포

유로화 환율 1.1달러 밑으로  
아시아 증시 급락세로 출발  
리스크 회피 탓 亞 채권 강세



그리스 국민이 채권단의 긴축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를 선택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조짐이다.

6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외환시장에서는 유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유로-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4% 빠진 1.099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유로-달러 환율은 한때 1.0979달러까지 떨어지며 지난 6월 29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로-엔 환율은 1.74% 하락한 134.06엔을, 유로-파운드 환율은 0.95% 미끄러진 0.70파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증시도 급락세로 출발했다. 오전 9시 30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5% 빠진 2080.18을, 일본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2만265.35로 전 거래일 대비 1.34%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은 강세다.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거세

지고 있다. 9월말 일본 장기 국채는 지난 주말보다 30전 오른 146.91엔에 거래를 시작했다. 한때는 147엔까지 올랐다.

이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놀라운 결과였다”며 “기본적으로 불투명하다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트러스트의 클렐 밀러 투자 전략가는 “의외의 투표결과가 나왔다”며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유로화 가치는 2%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이 제시한 긴축안이 부결됨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여부는 독일 프랑스 등 여내 정상들의 결정에 맡겨졌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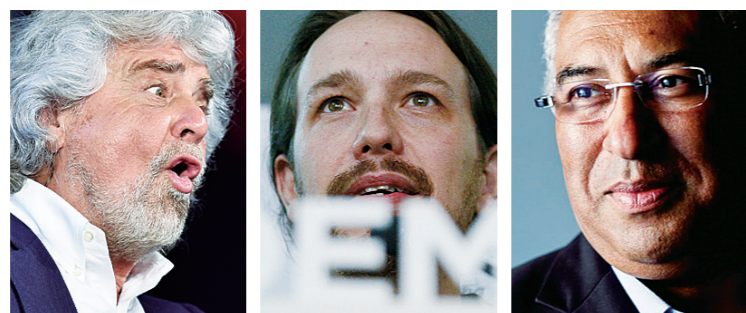
정혜인 기자 haein2558@

## 유로존 사분오열...흔들리는 ‘하나의 유럽’

포르투갈·스페인·이 등 좌파 열풍...영국 ‘브렉시트’ 가속화 가능성

그리스에서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 국제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이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하나의 유럽’이라는 기치 하에 모였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더 나아가 유럽연합(EU)이 사분오열되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로 그동안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긴축으로 고통받아왔던 남유럽 다른 국가에도 긴축을 반대하는 좌파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납세자의 돈으로 이런 국가들을 지원해야 하는 독일과 다른 북유럽 국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탈리아 5성운동의 베네치노 베네치노 대표, 스페인 극진좌파 포데모스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당수,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코스타 사회당 사무총장 당수

지난 2012년 구제금융을 받아 지난해 졸업한 포르투갈은 좌파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처럼 유로존에서 이탈(포렉시트, Porexit)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올해 9-10월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긴축 반대와 세금 감면을 외치는 사회당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당이 집권한 뒤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처럼 긴축에 반대하던 구제금융과 관련해 채권단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포르투갈 사회당은 중도 좌파에 속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최근 신생좌파 정당인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가 돌풍을 일으켜 시장의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포데모스는 창당 4개월 만인 지난해 5

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8% 득표율로 스페인 제3당으로 급부상했다.

오는 12월 열리는 스페인 총선에서 포데모스가 승리하면 그리스 상황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포데모스를 이끄는 파블로 이글레시아스(37)는 여러모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유럽 최대 경제국인 이탈리아에도 반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반EU, 채무담감 등을 내세운 베네치노의 ‘5성 운동’이 득표율(18.4%)로 집권 민주당(24%)에 이어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무기삼아 EU 협상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스 국민투표로 EU 여론이 분열된 가운데 영국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배준호 기자 baehj9@



# 절세 HERO, 13월의 보너스를 지켜라!

## 현대증권 절세 HERO 3총사

올해 1,300만원 저축하면 내년 연말정산시 124.8만원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p><b>연금저축계좌</b></p> <p>올해 400만원 저축하면? 내년 <b>52.8만원</b>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p> <p>공제금액/투자금액 연 <b>13.2%</b></p>	<p><b>IRP(개인퇴직연금)</b></p> <p>올해 300만원 저축하면? 내년 <b>39.6만원</b>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p> <p>공제금액/투자금액 연 <b>13.2%</b></p>	<p><b>소득공제장기펀드</b></p> <p>올해 600만원 저축하면? 내년 <b>32.4만원</b>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동특세 고려)</p> <p>공제금액/투자금액 연 <b>5.4%</b></p>
--	---	--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가정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363호(2015년 04월 07일~2016년 04월 05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 중도해지 시 또는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펀드가입 전(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연금(예금보험)은 예금보통예금에 대한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통예금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메르스 진원지 평택성모병원 진료 시작



메르스의 첫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이 6일 재개원했다. 평택성모병원은 지난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뒤 같은 달 29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직원 270여명은 5월 20일~6월 1일 차례로 자가격리됐다. 6월 13일 자로 모두 해제됐다. 6일 오전 경기도 평택성모병원 입구에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대단지 행복주택 '행복타운' 만든다

2000가구·편의시설 복합  
의왕·수서 등 후보지 5곳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도심지 역세권 등지에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당초 도심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었지만 주민과 지자체 반대에 부딪히면서 LH 등이 보유한 택지개발지구와 지자체 보유 부지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 지자체 등과 함께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행복주택 및 일반 분양주택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행복주택 후보지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 의왕시 고전동 의왕시청 인근을 의왕고전행복타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곳에 2016년까지 행복주택 1300가구를 비롯한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강남 수서역 KTX 역세권 개발 사업지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뒤 2000가구 안팎의 행복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메르스 여파로 한국 경제성장세 약화”

KDI, 6월 경제동향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메르스의 부정적 여파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인 성장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KDI는 6월 펴낸 ‘6월 경제동향’에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광공업 생산이 저조한 수준에 정체되는 등 경기 전반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공업생산은 5월 중 전월(-2.6%)과 유사한 -2.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급년 중 가장 낮은 73.4%까지 하락했다. KDI는 또 “제조업 출하의 감소세가 지

속되는 가운데 재고율은 전월에 이어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에도 생산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간 소비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메르스의 부정적 여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5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4%를 기록하며 전월(4.0%)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KDI는 “메르스의 부정적 여파가 집중된 6월에는 숙박업, 여가, 관광업 등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KDI는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은 재화 소비보다 서비스 소비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서비스 소비가 메르스의 여파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mpark@

황우여 “사학연금 개혁 정기국회 이전에”

당정이 사학연금 개혁 공론화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혁을 위한 첫 당정협의를 가졌다. 지난 달 22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학연금 개혁안을 보고한 지 2주 만이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사학연금의 기여율(부담금)과 지급률을 바꾼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상 지급률을 따르게 돼 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부

칙에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사학연금 지급률은 관련 규정이 없어 당장 내년부터 1.7%로 낮아진다.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학연금을 손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학 측에 손실이 따른다”며 “그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신도 있게 논의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사학연금법 개정은 필수적이고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전에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은 단계적으로 하고 시행령은 법을 개정된 다음에 (개정)해야 하지만 큰 틀은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자국 내 에너지 확보로 경제 살리고·유해물질은 줄이고  
체코·프랑스 국민 “原電가동 지지”

원전 논란,  
유럽서 답을 찾다

에너지 수요 수입 의존하는 체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추가 계획  
프랑스 정부 “노후 원전 폐쇄”에  
“생계 걸려 있다” 지역주민 시위  
가동 중단 선언 독일과는 대조적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脫)원전 여론과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원전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여전히 있다. 여기엔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와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체코 “2040년까지 원전 비중 45~55%까지 확대” = 체코는 유럽에서 보기 드문 원전 확대국이다. 최근 승인된 2040년까지 에너지기본계획인 ‘국가에너지전략(SEC)’에 따르면 원전의 비중을 현 33%에서 2040년까지 46~58%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현재 60%(석탄 7-8%, 갈탄 50%) 정도의 화력발전 비중을 20%까지 낮춰 재생에너지는 18-25%, 가스 5-15%, 석탄 11-21%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오는 2020년까지 자국 내 17개 원전의 가동을 모두 중단키로 한 이웃 국가 독일 정부의 방침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체코가 원전 확대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26일 프라하 시내 체코 산업통상부(MIT)에서 만난 렌카 코바초프스카 에너지전략·국제협력국장은 “체코 경제가 공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도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체코 내 전력



렌카 코바초프스카 체코 산업통상부(MIT) 에너지전략·국제협력국장.



지난달 23일 프랑스 알자스 지방 페센하임(Fessenheim)시에서 시위대가 중앙정부의 원전 폐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체코 원전 추가 건설·계획

원자로	용량 (MW)	가동(예정)	비고
테멜린(Temelín) 3기	약 1200	미정	추가 건설 계획
듀코바니(Dukovany) 5기	약 1200	2032년	추가 건설 계획
테멜린(Temelín) 4기	1200 (추산)	미정	건설 제한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면서 유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면 원자력 발전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코에는 바다가 없어 해양에너지를 얻을 수 없으며 천연가스는 가격 변동이 심한 데다 자국 내 부존량이 적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태양광은 설비 과잉투자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정부 재정지출 증가가 우려돼 체코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FIT)에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체코로서는 EU의 저탄소 정책에 부응해야 하는 데다, 탄전 노후화로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탄 사용도 줄일 수밖에 없다.

체코 국민이 원자력 발전에 반감이 낮아 ‘호의적인 편’이라는 점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2%가 원전 확대에

찬성했고, 45%는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코는 듀코바니에 400MW급 원전 2기씩 총 4기, 테멜린 지역에 1000MW급 2기 등 모두 6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각각 1기의 새 원전을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원전들의 수명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코바초프스카 국장은 “에너지 소비 전망과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이들 지역에 2기씩 더 늘려 최종적으로 4기를 새로 짓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장이 정부 방침에 반대... “폐쇄시 경제적 타격 심각” = 현재 58기 원자로를 가동 중인 세계 2위의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에서는 ‘노후 원전 폐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23일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 있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 페센하임(Fessenheim)시에서 만난 클로드 브렌데로 시장은 “원전 계속 가동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다. 지방자

치단체장으로서 이례적으로 노후화·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2016년까지 이곳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가 정부의 원전 폐쇄 방침에 맞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된 이유는 원전에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곳 주민들의 80-90%가 원전 폐쇄를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청 앞에는 ‘원전을 함께 지키자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일과 접경한 프랑스 북동부에 소재한 페센하임은 18.4㎢ 면적에 인구 2300여명의 작은 시골마을이다. 브렌데로 시장은 “지역주민 2300여명 중 900~1000명가량이 페센하임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그 가족들”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의 원전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곳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위축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떠나면 대체 산업이 없어 도시의 생산활동 자체가 줄 것”이라며 “원전이 들어선 이후 인구도 늘고 발전소에서 제공하는 지역 발전 기금으로 교육 복지나, 지역 문화시설 확충 등의 혜택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페센하임 원전은 아직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페센하임의 원전 고장률은 0.2%로 평균(0.7%)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脫원전’ 추진 스위스도 국민 반대에 ‘단계적 폐쇄’

방사성 폐기물 환경 영향 고려  
1982년 ‘나그라’ 지하동굴 건설  
방사성 물질 처리 연구 시작

지난달 25일 기사가 찾아간 푸른 산의 절경이 그림 같은 스위스 베른주 구타넨 아래 산맥 중턱, 깎아지른 듯한 언덕 중간에 석조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스위스의 방사성폐기물관리 공동조합(나그라·NAGRA)이 운영 중인 지하연구소시설인 ‘그림열 연구소(GTS)’다.

스위스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탈원자력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국민 대다수의 인식 속에 원전 전면 폐쇄가 아닌, 단계적 폐쇄를 통한 에너지 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이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만큼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안전한 처분에 철저함을 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1969년 첫 원전 가동 이후 1972년 나그라를 출범시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82년 나그라는 이곳에 지하 동굴 연구시설을 건설해 방사성 물질 처리 연구를 진행해 왔다. 우리 정부도 1978년부터 상



스위스 수도 베른시 남동쪽 120km 지점인 구타넨 마을에 위치한 스위스의 방사성폐기물 지하 연구시설인 ‘그림열 연구소(GTS)’ 전경.

스위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 개요

관리주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나그라, 1972년 세워짐)
방사성폐기물 처분	중간저장시설인 즈발러(ZWILAG) 등에서 최종처분 혹은 심지층 처분을 위한 중간저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3겹의 공학적 방벽으로 감싼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지하 300~1000m) 저장
사용후 핵연료 처분	해외 재처리 금지, 최종처분장 운영 시까지 중간저장 -최종 처분을 위한 연구시설(GTS, Mont Terri rock) 가동 중, 최종 처분장소 선정 중(취리히 노르트 오스트와 주라 오스트 등 2곳으로 압축)

업 원전을 운영해 왔지만 최근에서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건설·운영, 2020

년까지 지하연구소(URL) 부지 선정 등의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984년 문을 연 GTS는 사용후핵연료

연구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해 스위스 전역에서 지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연구하다 보니 연구소의 위치는 경도거리만 약 1100m, 산 정상에서부터 450m 깊이에 있다. 주변이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적합한 ‘결정질암(화강암)’으로 구성된 것도 특징이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바위산 입구에서 약 1km 길이의 굴로 들어가야 했다. 3분 정도 차를 타고 긴 터널 같은 동굴을 지나니 또 다른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 벽쪽에서는 연구원들이 중저준위 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나 다양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암반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의 임고 블레슈미트 연구소장은 “암반 생성 환경, 안전성, 건설 적합도, 지질학적 정보 등이 부지 선정의 주요 요건”이라고 말했다. 환경적 요인이나 주변 시설 조성에 대한 적합도가 평가기준이 될 뿐 ‘정치적 이유’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전 부지나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을 놓고 정치권과 이익단체들의 입장차로 갈등을 겪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다. 스위스는 2020년께 국민투표 등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고준위 폐기물 최종 처분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 국내 1호 해커의 몰락



고졸 출신이자, 국내 해커 1호인 김재열(46·사진) 전 KB금융지주 전무가 금품수수로 인해 한순간에 나라 끝으로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 KB금융지주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취임해 국민은행이 주관하는 KB금융그룹의 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IPT)을 추진하면서 친분이 있는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고 하도급업체로 G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몰려 조사됐다.

이후 조씨의 회사는 G사로부터 이 사업의 기술지원 명목으로 2억6000만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하고

13억4000만원 상당의 장비 등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KT 자회사인 KTE&S와 10억6000만원 상당의 서버 및 스토리지 납품계약을 했다.

조씨는 이런 이익을 얻은 대가로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김씨 부인의 차량 운전기사 2명의 임금 4800여만원을 대신 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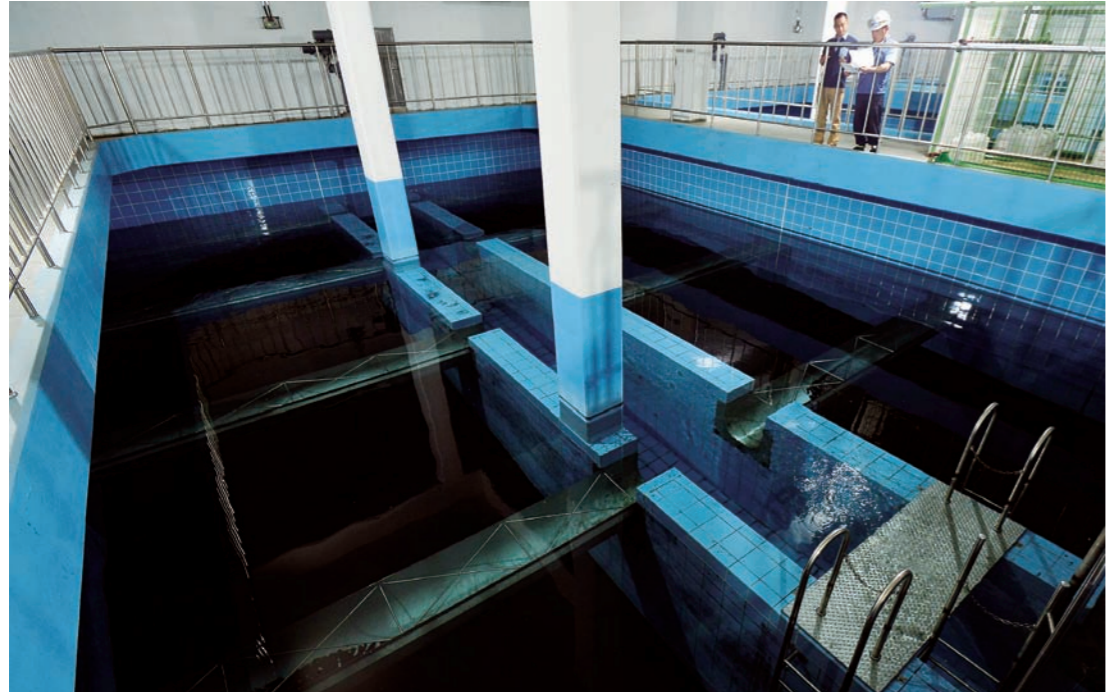
이에 대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부하직원의 모범이 되고 업무처리에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특히 신중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범행에 적극 활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93년 청와대 PC통신 ID를 도용해 은행 전산망에 접속했다가 적발된 고졸 출신 '국내 1호 해커'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어 2008년에는 39세의 젊은 나이로 KB국민은행연구소 소장으로 영입된 바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김재열 前 KB금융지주 전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받고 인프라 사업자 선정 영향력 징역 3년·추징금 6800만원**

## 독도정수센터 고도처리시설 가동



독도아리수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비된 6일 서울 독도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인 활성탄흡착지에서 관계자가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독도정수센터를 마지막으로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가뭄이나 녹조발생 등 어떤 환경에서도 깨끗한 아리수를 서울시 전역에 100%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태현 기자 hojjak@

## 靑 정보유출 내부감찰...행정관 3명 사퇴

청와대가 최근 정보유출 문제로 내부 감찰을 벌인 끝에 행정관 3명이 사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행정관들이 사퇴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청와대 행정관 3명이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다가 지난달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발표(5월 21일)

김익중 기자 zerg@

이전에 보도된 언론 기사들의 출처와 관련해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황 총리 인선 발표 전에 언론들이 ‘차기 총리 법조인 유력’이라고 보도한 점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조사는 황 총리 인선이 발표된 직후부터 시작돼 6월 초·중순까지 이어졌으며, 황 총리 인선 사실을 특종 보도한 언론은 없었으나 청와대는 언론들이 ‘법조인 출신 총리설’을 보도하는 과정에 일부 행정관들이 관여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현 회장 대법 판결, 9일 선고목록서 제외

#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 다시 낼 듯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또 한번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9일 예정된 선고 목록에 이 회장 사건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료 시점은 21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 선고기일인 16일에 일정이 잡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내고 결정이 내려지는 데 통상 7~10일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장은 16일 이전인 10일 근처에 신청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

인다면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CJ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이 회장 측은 연장신청을 낼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만일 대법원에서 2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최영길 기자 jyg97@

# 공무원에 뇌물주는 세무사 자격박탈

### 국세청, 1000만원 이상 금품 제공 직무정지·등록취소

### 신고 댄 우대혜택 제공 ‘클린신고 납세자’ 제도 운영

앞으로 세무편의 명목으로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은 자격을 박탈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국세청은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분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하에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

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사 간의 일대일 면담제를 활용해 조사 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 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권유한 세무대리인을 신고할 때는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들은 세무대리인의 부조리로 세금 징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 거짓광고로 소비자 유인하고 반품비용 부담청구

##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과태료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정약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아이 △스인터커머스코리아 △토포즈 △폼바이 △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11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런던걸, 비움, 폼바이, 허브인커머스 등 4개 업체는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을 소비자에게 요구했다.

브랜드매니아, 아이에스커머스 등 2개사는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박성영 기자 syark@

# 개인연금, 대신증권으로 옮기면 특판RP 연 3.50% 혜택!

(3개월예치시/세전, 2015.07.01기준/개인고객/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RP 수익률 적용)

**개인연금 이동금액의 10배, 최대 5억 원까지 특판RP 연 3.50% 혜택!**

**이제 대신 연금저축계좌로 옮기세요 대신이니까, 크게 드립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지 시 특판RP 수익률은 기본수익률 적용
-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고객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RP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이 손실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P의 만기일 이전 중도환매할 경우 당초 약정수익률보다 낮은 중도해지수익률로 지급됩니다. \*대신(별첨)신원금저축계좌의 납입요건, 연금수령요건 및 한도, 중도해지시 과세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4488)로 문의바랍니다. \*세액공제의 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3661호(2015.05.28~2016.05.27)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 ‘하나+외환’ 통합투어 나선 김정태 회장

〈하나금융그룹〉

오늘 대구 시작해 부산·경인 ‘콘서트’ 열고 통합 조건 설명 “외환銀 노조 대표성 상실했다” 비판 여론…김회장 행보 속도



직원들에게 통합 조건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강연의 주제는 그룹의 위기와 극복 방안으로 정해졌지만, 최대 현안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인 만큼 영업 일선의 직원들과 통합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김병호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도 각 행 본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설명회에 나선다. 하나금융 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도 노조와 대화는 계속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김 회장이 양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은 통합이 늦어질 경우 금전적 손실과 사업 차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오는 9월 말까지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른 경영연에 대한 배임문제 때문에 외환은행의 존속법인인 백지화된다. 하나금융은 통합 시기가 늦어지면 결국 감면기한을 넘겨 2754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져

가는 것도 김 회장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지난달 26일 노조의 통합중단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 1일부 외환은행 사내 인트라넷에는 노조 지도부를 향해 통합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또 지난 2일에는 외환은행 본점 부서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부-점장협의회가 조기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3일에는 외환은행 주니어 직원 300여명이 참여하는 ‘KEB 영리더 워크숍’에서 조기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나금융측은 직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외환은행 노조가 직원의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보고 협상단 교체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구귀 기자 kkk@

## 손보사 단종보험…반응은 ‘시큰둥’

보험료 산정 어렵고 대리점과 수수료 협상 문제로 관망세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포화된 시장에서 보험사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에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정이 어렵고 단종대리점들과의 수수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7월 출시하려 준비했던 가전제품의 애프터서비스(A/S)를 보장해 주는 단종보험인 ‘EW(연장보증)보험’의 출시를 연기했다.

롯데손보가 출시를 연기한 EW보험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기존 AS기간 이후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컨대 A씨가 에어컨을 구매한 뒤 EW보험을 가입했다면 정식 AS기간이 지난 뒤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롯데손보는 계열사인 롯데하이마트를 단종보험대리점으로 활용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열사인 롯데하이마트와 수수료 협상이 결렬될 조

용했다. 판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다면 롯데하이마트의 수익이 낮아지고 보험료가 1만원 수준에 불과해 수수료를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은 단종보험 판매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채널이 늘어났을 뿐 실질적인 수익 증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A손보사 관계자는 “단종보험대리점과 협의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겠지만 홍보비와 교육비,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되면 애원보험이나 AS보험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신상품이 줄줄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전망과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종보험 판매를 담당하는 대형마트, 가전매장 직원이 불안전 판매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에게는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 금융사 줄세우기식 민원평가 손본다

악성 민원 초래…15년만에 폐지 건수 위주서 3등급 절대평가로 소비자에 평가내역도 상세 공개

지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부터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금융회사 줄세우기, 악성민원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민원건수 위주의 평가만으로는 금융회사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5개 계량항목과 5개 비계량항목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년 1회 진행되며, 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 등 3등급으로 평가한 뒤 종합등급은 매기지 않기로 했다. 평가대상은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대형사와 중소기업사로 이원화한다. 중소기업사에 대해 자율평가를 도입 금감원이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 주택담보대출 6월 9조 늘어

지난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택담대) 규모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최대 폭이다. 거듭된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했다. 6월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

리·하나·외환·농협·기업 등 7개 은행의 6월 주택담대 잔액은 321조4399억원을 기록했다. 전월(330조9403억원)과 비교하면 9조8964억원 줄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지난달 안심전환대출 19조1716억원을 주택금융공사에 팔아 유통화한 점을 고려하면 한달 사이의 실질 증가액은 9조2752억원으로 조사됐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KB국민카드 ‘소비자중심경영’ 선포

하반기 KB국민카드 경영전략회의 및 CCM



KB국민카드는 지난 3일 강원도 평창에서 김덕수 사장 등 전 경영진과 부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및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 후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가운데)과 이재홍 상무 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오른쪽), 한용석 소비자보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 BNK캐피탈, 캄보디아 소액대출 영업 시작

연체율 0.3% 수준 매력적 시장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BNK캐피탈이 미얀마, 라오스에 이어 캄보디아에서도 소액대출 영업권을 따냈다.

6월 금융권에 따르면 BNK캐피탈은 지난 5월 캄보디아 금융당국으로부터 현지 법인의 소액대출영업에 대한 분인가를 받아 지난달 부터 시범영업에 들어갔다. 현지 법인의 초기 자본금은 500만달러다.

BNK캐피탈 관계자는 “지난달 분인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다”며 “가계 신용대출

과 오토바이 담보대출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BNK캐피탈이 진출한 메콩강 유역 경제권 3개국 가운데 캄보디아는 연 평균 7%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해외 자본의 관심이 큰 지역이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인구는 전체의 약 13%에 불과해 성장성도 높다.

소액대출 연체율이 0.3% 수준인 점도 매력적이다. 3개국에 모두 연대보증 제도가 마련돼 있고 100~1000달러 규모 소액대출이 대부분이어서 부실 위험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림 기자 hura@

## “은행 창구에 증권사 직원 배치”

## 신한은행의 ‘복합점포 대중화’ 실험

하반기부터 2~3명 상주 상품안내

신한은행 복합점포 모델

신한PWM 출범 - 2011년12월 채널 - 26개

국내 최초 은행과 증권 협업 기반 복합점포 모델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신한 창조금융플라자 출범 - 2015년4월 채널 - 2개

신한은행의 기업금융지점에 신한금융투자의 투자금융전문가를 배치함, 은행의 기업금융 경쟁력과 금융의 자본시장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금융 플랫폼

신한은행이 복합점포 대중화 실험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은행 창구에 신한금융투자(증권) 직원을 상주시키고 상품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기존 은행과 증권 전문가를 합친 PWM 모델을 은행 창구에 이식 한 것이다. NIM(순이자마진)이 급감하고 비이자 수익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은행에서 중요해 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월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하반기부터 영업 지점에 신한금융투자 직원 2~3명을 상주시켜 신한금융투자의 상품 판매 안내를 하는 복합점포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무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는 “기존 PWM이 은행과 금융투자의 PB를 합친 것이라면 이번에는 리테일에 금융투자가 합쳐진 모

델이 나오는 것”이라며 “4년전에 신한은행이 복합점포를 도입했는데, 이번에는 대중화 시킨 것이다. 하반기에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2011년 12월 은행과 증권이 협업하는 복합점포 모델 PWM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현재 PWM은 26개다. 이후 신한은행은 올해 4월 신한 창조금융플라자를 선보였다. 신한 창조금융플라자는 현재 2개다. 강구귀 기자 kkk@


www.duzon.co.kr

# 스타트업부터 스마트하게

12만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회계프로그램의 표준이 되어 온 더존 Smart A.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그룹웨어, MS오피스 및 각종 IT자원 서비스까지 놀라운 혜택을 드립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필수 IT 아이템을 한번에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5년 노하우의 더존과 산뜻하게 스타트업하세요!



**1**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해당 프로그램 전용 **그룹웨어 무상제공**

**2**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유로운 문서작업이 가능한 **MS 오피스 무상제공**

**3**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IT자원과 관리 서비스 제공**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 한삼인, 건강을 부탁해!

행사기간 : 2015.6.25 ~ 7.20 (26일간)

무더위로 지친 여름, 한삼인으로  
우리가족 건강을 지켜줘!

하나

## 건강한 가족을 부탁해!

우리가족 건강을 책임질  
농협홍삼 한삼인 제품을 만나보세요!  
주요제품 최대 20% 할인

셋

## 건강한 식탁을 부탁해!

농협홍삼 한삼인 홍삼제품을  
활용해서 요리를 만들어주세요!  
선정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둘

## 건강한 여름을 부탁해!

농협홍삼 제품 (건강기능식품 제외)을 구매하고  
응모권을 받아주세요!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 삼성 스마트폰 회복에도 실적은 '글썩'

IM부문 2분기 영업이익 3조1700억 전망... 전분기보다 16%↑

보급형 증가로 성적 기대 못미쳐... "수익성 개선 새 과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회복에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IM(IT·모바일)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IM부문은 지난 4월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 '갤럭시 S6 엣지' 출시 효과로 올 2분기 3조17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분기 2조7400억 대비 15.6% 상승했지만, 지난해 '갤럭시 S5' 출시 때(4조2400억원)보다 저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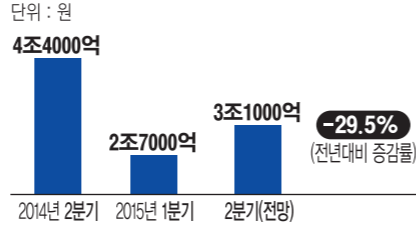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2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 올 2분기 가이던스(잠정실적)를 발표한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이 늘고 있지만, 보급형 제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수익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이 가격은 낮추고, 사양은 높이는 '저마진 구조'로 고착화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급형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전체 제품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도, 동

삼성전자 IM 부문 영업이익의 추이



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의 마진율이 낮더라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삼성전자가 보급형 라인업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익성 확보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급형 시장에서 중국업체의 거센 추격이 삼성전자에 부담이 되고 있다. IDC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급형 시장인 동남아

지역에서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판매량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시장점유율은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동남아 지역에서 전년 동기(430만대) 대비 28% 증가한 550만대의 스마트폰을 팔았다. 반면 시장점유율은 작년 1분기 29.8%보다 7%포인트 하락한 23.0%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1분기 중국 아수스, 오포, 화웨이 등 저가폰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각각 100만대 이상 판매하며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보급형 제품 라인업을 강화해 빠르게 성장하는 저가형 시장을 조기에 선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늦어도 9월까지 인도에 '갤럭시 S1' 전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S1', '갤럭시 S1E'와 함께 삼성전자의 핵심 보급형 라인인 갤럭시 S 시리즈의 가격은 약 10만~25만 원이다.

장효진 기자 js62@

## 길이·무게 줄인 여성용 'LG 톤플러스 헤드셋'



LG전자는 여성 소비자를 위해 길이와 무게를 줄인 'LG 톤플러스 헤드셋(HBS-5000미니)'을 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HBS-5000미니'는 기존 'LG 톤플러스' 시리즈보다 넥밴드(목에 두르는 형태) 길이를 2cm 줄여 22cm로, 무게는 약 3g을 줄여 시리즈 중 가장 가벼운 29g을 완성했다. 소비자 가격은 7만9000원이다. LG 트윈타워에서 'LG 톤플러스'를 착용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 美서 평판 좋은 기술기업 1위 삼성... 이어 HP·MS

삼성 미국에서 가장 평판 좋은 기술기업 1위에 올랐다.

5일 세계적 기업평가기관인 '명성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삼성은 미국에서 가장 평판 좋은 테크놀로지기업(Technology company) 1위로 뽑혔다.

올해 2위는 휴렛패커드(HP),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 4위는 구글, 5위는 SAP이었다. 이외에 인텔, NCR, 어도비,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도시바 등이 순서대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삼성은 8위였다. 1위였던 닌텐도는 올해 게임 콘솔 회사로 분류돼 순위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상위 10곳 중에서는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3곳만이 올해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애플은 지난해 19위보다 두 계단 떨어진 21위에 그쳤다. 애플은 삼성보다 혁신성 면에서는 앞섰지만 기업관리, 시민의식, 제품·서비스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R1는 50여개국 25개 이상의 업종별 기업 7천여곳을 대상으로 평판도 조사를 해오고 있다. 미국인 5만여명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혁신성, 근로환경, 기업관리, 시민의식, 리더십, 경영실적 등 7개 영역을 평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SK종합화학, 사빅과 '넥슬렌' 합작법인 출범

SK종합화학이 세계 2위 규모의 종합화학기업인 사빅(SABIC)과 넥슬렌 합작법인을 출범시키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SK종합화학은 지난 3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고성능 폴리에틸렌의 SK브랜드인 넥슬렌(Nexlene™)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협상을 매듭짓고, 합작법인 출범을 공식화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50대 50 비율로 출자해 7100억 원 자산 규모의 합작법인인 SSNC를 싱가포르에 설립할 계획이다. 앞서 SK종합화학은 지난달 한국넥슬렌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울산 넥슬렌 공장 자산을 KNC에 현물출자한 바 있다. KNC는 SSNC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국내 기업 중 에틸렌 생산량 기준 세계 1위의 글로벌 화학메이저인 사빅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것은 SK종합화학이 처음이다. 이 프로젝트는 최태원 회장이 2011년 3월 중동 방문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사빅의 모하메드 알마디(Mohamed Al-Mady) 전 부회장에게 합작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다보스포럼, 중국 보아오포럼 등에서 알마디 부회장을 만나 공을 들였고, 두 회사 실무진은 4년 간의 협상 끝에 이번에 최종 결실을 맺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 쌍용차 '티볼리 디젤' 시동... 유럽공략 속도

리터당 17.3km 고효율 연비 승부... 연말엔 롱바디 모델 출시

쌍용자동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를 앞세워 해외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유럽을 겨냥한 티볼리 디젤 모델과 연말 롱바디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6일 티볼리 디젤 모델을 출시했다. 올해 1월 가솔린 모델로 출시된 티볼리는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상반기 소형 SUV 시장에서 판매 1위를 달성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소형SUV 판매는 티볼리가 1만 8524대로 1위를 차지했다. 티볼리에 이어 르노 삼성의 QM3과 한국GM 쉐보레의 트랙스 4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쌍용차는 연비 효율성을 높인 디젤 모델을 앞세워 유럽 공략에 나선다. 에너지



관리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볼리 디젤의 복합연비는 수동 변속기 2륜 구동 모델이 리터당 17.3km다. 자동 변속기 2륜 모델이 리터당 15.3km, 자동 변속기 4륜 모델이 14.5km다. 경쟁 모델인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투싼' 1.7 DCT 모델(리터당 15.6km)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르노

삼성자동차의 소형 SUV 'QM3'(리터당 18.5km) 보다는 낮다.

속원사업인 북미 진출을 위해선 콘셉트카 'XAV'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이 지난 4월 서울모터쇼에서 콘셉트카 XAV를 공개했다. 당시 최 사장은 XAV를 북미 진출을 위한 비밀병기로 소개했다.

당시 최 사장은 "XAV는 코란도를 계승한 정통 SUV 모델로 양산을 준비중"이라며 "미국 진출 첫 선봉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 SUV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XAV는 코란도에 대한 오마주와 글로벌 젊은층을 타겟으로 개발됐다. XAV는 1.6ℓ 엔진에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후륜에 전기모터로 구성된 e-4WD 시스템을 조합,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한다.

김병근 기자 nova@

## "1100여개 알뜰주유소 잡아라"... 정유업계 쟁탈전

석유공사·농협 유류 입찰 공고  
한화토탈, 정유업 재진출 주목

전국 1100여개 알뜰주유소 유류 납품을 위한 정유사 간 쟁탈전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한화토탈을 인수한 한화그룹의 정유업 재진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은 지난 3일 입찰공고를 내고 알뜰주유소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의 NH-오일, 자영알뜰주유소, ex-오일 등 전국 1100여 알뜰주유소가 이번 사업자 선정에 따른 유류공급

입찰 대상이다. 알뜰주유소 입찰은 1부와 2부 시장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국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전국적 유통과 배송이 가능한 업체, 즉 정유 4사 만이 해당된다. 2부는 생산과 수입 유통에 참여하는 업체라면 입찰이 가능하다.

올해 입찰공고에 따르면 최저입찰제가 도입되고 계약기간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사업자 선정되던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알뜰주유소에 유류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사업자 선정에

서 1부는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등 정유사들이, 2부는 한화토탈(예 삼성토탈)이 사업자로 선정돼 왔다. 정유 4사 중 막내로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 유통망이 약한 현대오일뱅크는 1부 시장 중부권 사업자로 세 번 연속 선정됐고 남부권은 GS칼텍스와 에스오일, SK에너지가 각각 한 번씩 사업자로 참여했다.

2부 시장의 관심은 한화토탈의 사업자 선정 여부다. 한화토탈이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선정되면 한화그룹은 1999년 경인에너지 매각 이후 16년 만에 정유사업에 재진출하게 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 KT 네번째 기가마을은 청학동

마을 도서관 '기가서당' 새 단장  
전자철관 '비터치'로 원격 강의

KT가 청학동을 '기가(GIGA) 창조마을'로 탈바꿈한다.

KT와 농식품부는 6일 경상남도 하동군 청학동을 기가인터넷 인프라와 지역 맞춤형 IT 솔루션을 적용한 기가창조마을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IT인프라 구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T의 네번째 기가마을인 청학동 기가창조마을은 전통과 첨단을 적용해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리산 중턱인 해발 800m에 위치한 청학동은 산간 지역 특성상 장마철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주민 고립이나 조난의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또 외부와 교류가 쉽지 않아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 인프라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KT는 지리적 특성으로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고 청학동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교류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마을 도서관을 ICT 복합문화공간인 '기가서당'으로 새 단장했다.

특히 KT에서 전담 중인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입주 기업 '에너렉티브'의 모바일 전자철관 솔루션 '비터치(BeTouch)'를 적용해 청학동 서당의 훈장이 원거리에 있는 지역민에게도 원격으로 강의할 수 있게 했다.

청학동 주민들은 원격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 및 교양 강좌도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마련된 마을 영화관에서는 주민들이 다양한 UHD급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KT는 IT 기술로 청학동의 관광 인프라도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청학동 관광지과 지역 주민이 직접 제공하는 숙소, 식당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위치기반 애플리케이션(앱) '청학동'을 출시했다. 이 앱은 온라인 전자직거래장터와도 연동돼 농가소득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KT는 산악 지역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추락 및 조난 사고에 대비하여 열영상 카메라와 HD 카메라가 장착된 안전 감시용 드론을 기증했다.

아울러 청학동이 도시에 비해 노년층이 많은 것을 감안해 다양한 모바일 솔루션으로 노년층의 생활 편의 향상 방안도 마련했다.

박성태 기자 psi@

## LG화학·삼성SDI 'ESS' 평가 1·2위

'네비건트리서치' 시장조사

LG화학과 삼성SDI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6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네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ESS 분야 배터리 기업평가보고서에서 LG화학이 총 84점으로 1위를, 삼성SDI가 83.5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LG화학은 전략부문 86.3점, 실행부문 81.8점 등 총점 84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LG화학은 지난 2013년 평가에서 87점으로 1위에 오른 바 있다.

삼성SDI는 전략 부문은 85점으로 LG화학에 뒤졌지만 실행 부문에서는 82점으로 오히려 앞서 총점에서는 0.5점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앞서 일본에서 발표된 ESS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조사에서는 삼성SDI가 1위, LG화학이 2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 평가기관

의 연이은 평가에서 국내 업체가 1·2위를 석권하고 있다.

양사는 향후 북미와 유럽 등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ESS 배터리 사업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2010년 북미 시장에 처음 진출한 후 2013년 SCE의 북미 최대 32메가와트시(MWh) ESS 실증사업에 배터리를 공급했다. 또 최근 가정용 ESS 제품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SDI의 가정용 ESS 배터리는 세계 최초로 독일 전기기술자협회(VDE)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의 기술인증도 받으면서 독보적인 안정성과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일체형 가정용 ESS 용인원을 출시해 유럽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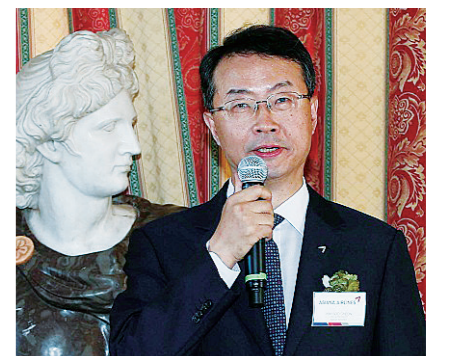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TV나 디스플레이처럼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층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만 기자 redpill@

## 로마 직항편 첫 운항 마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서유럽 노선 중남·중동부로 확장"

"로마 취항으로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등 서유럽 중심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네트워크가 중남부 유럽으로 넓혀졌다. 향후 취항지를 중동부 유럽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과 로마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제공항을 오가는 매주 화·목·토요일 직항편의 첫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친 아시아나항공의 김수천 사장은 유럽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에서 로마로 가는 첫 비행기에는 290명이 탑승해 96.7%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로마에서 출발해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날 오후 인천에 도착한 비행기도 268명이 이용, 탑승률이 89.3%를 기록했다. 항공업계에서는 탑승률이 80%를 넘으면 통상 수익성이 좋은 노선으로 보고 있다.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빌라 미아니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로마 신규취항 기념 간담회에서 김수천 사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첫 유럽 취항이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취항이) 늦은 만큼 분발해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네트워크가 중남부 유럽으로 넓혀지면서 여행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와함께 빠른 시기에 인천~로마 직항편이 매일 운항되도록 노력하고 중부와 동부 유럽 쪽 취항지도 확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희준 기자 h9913@

## 메르스에... 물놀이용품 시장 찬바람

튜브보트 등 휴가철 효자상품  
지난달 매출 절반으로 줄어



최근 3년간(2011~2013) 6월달 물놀이 용품의 매출은 이전 달보다 6~10배가량 늘어났다. 심지어 세월호 여파로 소비가 위축됐던 지난해에도 6월달 물놀이 용품 매출은 전달보다 3.6배(258.6%) 늘었지만 올해는 2.4배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통큰 세일' 주간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물놀이 용품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김진욱 토이저러스 팀장은 "여름이 다가왔지만 최근 메르스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물놀이 용품의 매출은 기대에 못미친다"며 "통큰 세일을 맞아 '물놀이 관련 용품의 판매가 활성화돼, 시름에 빠진 파트 너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물놀이 시장은 찬바람을 맞고 있다.

5월 롯데마트가 지난 6월 물놀이 용품의 매출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비치볼이나 튜브, 보트 등의 물놀이 관련 용품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표적인 휴가철 효자 상품인 보트와 비치볼이 각각 50.5, 56.5% 줄었고 튜브 역시 61.5% 감소했다. 전체 물놀이 용품의 매출 성장률은 -46.7%를 기록했다.

5월부터 이른 무더위가 시작돼 전국의 5월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역대 2번째(25.1°C)로 높았고 6월에는 마른 장마가 이어져 여름 특수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정작 메르스 사태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물놀이 용품은 특정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 상품'이라 6월 매출은 한해 실적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여겨지며, 작년 달보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과거에도 세월호 사태가 있었던 작년엔 제외하곤



디아지오 저도 위스키 '원저 더블유 아이스'

## 부산·영남 찍고, 제주시장 진출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

"프리미엄 위스키 선호도 높아  
내년 상반기 전국 확대 검토"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가 제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가 부산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35도 저도 스피릿 드링크인 '원저 더블유 아이스'의 제주 진출을 공식화했다.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는 지난 3일 제주 서귀포 하얏트리조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5도 프리미엄 스피릿 드링크인 '원저 더블유 아이스(W.I.C.E. by Windsor)'로 제주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제주지역 주민들이 가벼운 저녁 자리를 즐기고, 프리미엄 위스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 원저 더블유 아이스 시장 확대에 최우선 지역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경우 부산·영남 시장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유망하게 프리미엄 위스키 카테고리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독특한 시장이라는 게 이유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한성욱 디아지오코리아

해 전년 대비 3.7% 감소한 반면 제주 프리미엄 위스키 시장은 4.7% 성장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출시된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출시 4개월 만에 시장을 확장하며, 성장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부산·영남지역에 출시, 3개월 만에 취급 영업장 수가 약 3000개로 늘었으며 영업소의 제주분 비율이 80%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직접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 대형 할인매장 등을 통해 가정용 제품 판매도 시작하는 등 입장은 물론 소비자 사이에서도 대세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아지오는 부산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제주 시장을 모니터링한 뒤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초반쯤 기타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로 취임 2주년을 맞은 조 대표는 향후 위스키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 계획도 밝혔다.

윤철규 기자 yoonck@



## "최대 65%"... "재고 소진 때까지" SPA 브랜드 여름 세일

글로벌 SPA를 비롯해 토종 SPA들이 세일에 들어갔다.

6월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브랜드 유니클로가 다양한 제품들을 과격적인 할인가에 제공하는 '2015 여름 세일'을 9일까지 진행한다. 유니클로는 이 기간 동안 이너웨어와 상·하의를 비롯해 90여 개의 상품들을 최대 6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2015 여름 세일'은 무더운 날씨에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제품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할인 행사로, 시원한 착용감의 릴렉스 팬츠 '스테테코 & 리라코'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일부 남성용 '스테테코'와 여성용 '리라코'는 기존가에서 각각 2000원, 5000원 할인된 1만2900원과 9900원에 판매된다. 또한 바지 안 이너웨어로도 착용 가능한 남성용 '에어리움 스테테코'와 키즈용 제품을 정상가에서 7000원 할인된 7900원과 5900원에 만나 볼 수 있다.

드레스를 비롯해 브라컵이 내장되어 아름다운 실루엣을 연출하는 다양한 여성용 제품들도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에어리움 브라 핑크탑'과 '에어리움 브라 U네 T(반팔)'은 1만원 할인된 1만9900원에, 부드러운 코튼으로 만든 '브라 캐미솔'과 '브라 핑크탑'은 1만5000원 할인된 1만4900원에 판매된다. 특히 시원

한 착용감을 즐길 수 있는 여성용 '치노 마이크로 쇼트 팬츠', '데님 마이크로 쇼트 팬츠' 및 '컬러 마이크로 쇼트 팬츠'는 50% 이상이라는 놀라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전국 유니클로 매장 및 온라인 스토어(www.uniqlo.com)에서도 세일이 진행된다.

자라, H&M, 지오다노 SPA 브랜드들도 경쟁적으로 세일 행사를 펼치고 있다. 자라는 재고 소진시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2015 여름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SPA 브랜드 지오다노는 19일까지 2015 S/S 대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2015 썸머 세일(Summer Sale)'을 실시한다. 지오다노 세일에서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티셔츠(T-Shirts)'와 '쇼트 팬츠(Short Pants)'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과격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색상과 패턴 라인업으로 출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피케 티셔츠(Pique T-Shirts)'와 '쇼트 팬츠'는 모두 1만, 2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

토종 SPA들도 '맞벌 세일'에 나섰다. 제일모직 예잇 세컨즈는 다음달 31일까지 의류, 신발, 가방 등 전 제품을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한다. 신성통상 탑텐은 그래픽 티셔츠 두 장을 묶어 1만5900원, 컬러 베이직 티셔츠는 두 장에 7900원으로 20~50% 할인한다.

이선에 기자 isa@



##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한 제약사 5곳 살펴보니

### 동화약품, 지난해 리베이트 사건에 재인증 포기 일동제약, 요건 충족됐는데도 신청철회 공금증

정부가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41곳 중 36곳이 인증을 연장한 반면, 동화약품·일동제약·광동제약·SK바이오팜·바이넥스 등 5곳이 제외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6월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증이 연장되지 못한 5개 기업은 △철회 및 인증 연장 미신청 2곳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미달 등 선정 요건 미흡 2곳 △특별법상 제약기업 요건 상실 1곳 등이었다.

동화약품과 일동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은 인증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일동제약은 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했다. 동화약품의 경우 지난해 불거진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재인증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50여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아 관련법상 재인증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탈락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일동제약은 R&D 투자 비율 및 해외 진출 역량 등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인증 신청을 철회해

공금증을 자아냈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까지 불거졌던 독심자와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부담감이 이 같은 결정에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일동제약 관계자는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독심자와는 무관하다"며 "묵묵히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의 경우 R&D 비율이 기준에 못미친 데다 해외 진출 역량 역시 미흡해 재인증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3년간 이 회사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1%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장 제약사들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평균 8.2%인 데 비해, 광동제약은 1.1%에 불과했다.

SK바이오팜과 바이넥스는 기준 미달 및 특별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재인증에 실패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및 세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R&D 투자 비율 미달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www.hauri.co.kr

당신의 스마트폰 안전은 바이로봇이 책임집니다!

**도난방지 가능**

- 폰 분실이나 도난시 원격 잠금/삭제 가능
- SIM 카드 변경시 잠금 가능
- 파일 및 디렉터리 단위 파일암호화
- SDCard 영역에 대한 파일브라우저 가능
- 프로그램 실행시 인증 가능

**안전성검사 가능**

-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 코드 차단
- 행위기반 위험 애플리케이션 차단 및 취약환경 점검
- 업데이트 가능

**네트워크감시 가능**

- Wi-Fi의 AP(Access Point) 접근제어
- 3G망의 데이터 통신량 감시 및 차단

**스팸차단 가능**

- SMS에 대한 번호 및 텍스트 기반 차단
- While list/black list 를 이용한 전화 발신/수신 차단



스마트폰의 보안 업그레이드

신제품 출시

## 바이로봇 Mobile for Android

바이로봇 모바일 1.0 은 안드로이드(android) OS지원 토탈 보안 솔루션으로 안전성 검사, 스팸차단, 네트워크 감시 및 도난방지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바일용 차세대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 완판 아파트...상가 분양도 '핫'

배후단지 탄탄·공개입찰 방식

저금리에 실수요자·투자자 관심

하남 센트럴하이 29대1 경쟁률

청라파크하이 등 이달부터 분양

최근 단지 내 상가분양이 붐몰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6월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 신도시와 충청권에서는 단지내 상가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단지는 완판(완전판매)된 상태에서 향후 탄탄한 배후수요를 갖출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 및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지내 상가 분양에 대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단지내 상가 대부분은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돼 좋은 점포를 선점하기 위해 실수요층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입찰 방식은 아파트 청약처럼 청약일을 정해놓고, 분양업체가 정한 예정가(내정가) 이상의 최고 금액을 써넣은 입찰자가 낙찰받는 방식과 추첨을 통한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기존 선착순 방식이나 투자자가 원하는 점포를 찍는 방식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 실수요층들이 선호한다.

이 같은 이유로 단지 내 상가분양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GS건설이 지난달 초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공개입찰에 부친 센트

## 전국 주요 단지 내 상가 분양 현황

사업명	점포수
청라파크하이 데테라스 단지 내 상가	19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 트렉스퀘어	183
천안 불당 호반베르디움1차 단지 내 상가	38
구리갈매 아이파크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 미정	
아이파크 에비뉴(가칭)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단지 내 상가	34
카림에비뉴 김포	200
e편한세상 구미 교리 단지 내 상가	8
한강센트럴하이	49



청라파크하이 데테라스 상가 투시도

럴하이와 리버뷰하이 아파트단지 내 상가엔 투자자가 몰렸다. 입찰 경쟁률이 센트럴하이에는 29대 1, 리버뷰하이에는 15대 1이었다. 낙찰률(예정가 대비 낙찰가)은 각각 평균 177%, 173%나 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11일 기준금리를 1.50%까지 인하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여서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업체들도 단지내 상가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GS건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LA1, LA2 블록에서 '청라파크하이 데테라스' 단지 내 상가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전 매장이 1층 스트리트몰로 구성된다. 전용 24-45㎡형 총 19개 점포로 이뤄졌다. 이 단지는 '청라파크하이 데테라스' 646가구를 비롯해 주변에 약 5000가구의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이 건설사는 또 4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아파

트인 '한강센트럴하이'의 단지 내 상가도 이달 중 분양한다. 상가는 4개 동에, 40실씩 들어선다.

호반건설은 충남 천안시 불당지구에서 '천안 불당 호반베르디움1차' 단지 내 상가를 이달 중 분양할 계획이다. 이 상가는 1096가구의 배후수요를 갖췄다.

대우건설은 위례신도시 C2-4-5-6블록에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 '트렉스퀘어'를 분양하며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에 공급하는 '구리갈매 아이파크'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인 '아이파크 에비뉴(가칭)'를 오는 9월 분양할 예정이다.

공급 중인 단지 내 상가도 있다. 반도건설은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4차'의 상가인 '카림 에비뉴 김포'를 분양 중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광교신도시 업무7블록에 짓는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박태진 기자 tjiippo@

복선전철·한중FTA...서해안선 복합 호재 노려볼까

# 송산신도시·평택·당진 '주목'

각종 개발 호재로 서해안 일대 지역의 미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산신도시, 평택, 당진, 천안 등 서해안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역은 우선 최근 기공식으로 이슈가 된 서해선 복선전철을 비롯해 지난 4월 개통식을 가진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호재가 두드러진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서 충청남도 홍성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사업이다. 기존 새마을호보다 속도가 1.6배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전철이 운행돼 향후 송산에서 여의도는 30분대, 홍성에서 여의도까지는 약 57분만에 주파할 수 있다.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을 잇는 호남고속철도(KTX)의 개통도 서해안 일대의 분위기를 크게 띄웠다.

여기에 지난달 1일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돼 연내 발효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을 인천, 평택 등 서해안 주요 도시에 대거 유치할 계획임을 밝히 이 일대에 또 한 차례 시선이 집중됐다.

이처럼 이들 지역이 연이은 개발 호재로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수요자들이 역시 서해안 일대 권역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 물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반도건설은 3월 송산신도시 내 첫 번째 아파트 '송산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의 분양에 돌입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송산신도시는 최근 필리핀 '산미구엘'사와 국제테마파크의 투자협력 MOU를 체결

## 7월 서해안선 주요 분양 예정 단지

위치	단지명	총 가구수	시공사
경기 화성 송산신도시 EA B6-10블록	송산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80	반도건설
충남 당진시 송산2산업단지	당진송산 청광플러스원	299	청광종합건설
충도국제도시 RM2블록	충도 더샵 센트럴시티	2610 (238.0)	포스코건설
충남 천안시 불당동	불당 플럼 아이원	240	플럼산업
경기 평택시 동서2지구 1.2블록	자이 더 엑스프레스 1차	1849	GS건설

하고 또 송산-홍성 간 서해선 복선전철도 착공에 들어가는 등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광종합건설이 충남 당진시 송산2산업단지 인근에 '당진송산 청광플러스원' 아파트를 이달 공급한다. 단지 인근으로 송산2일반산업단지가 입주 및 가동 예정이다.

또한 IBM,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UN산하기구 등 16개의 국제기구가 이전한 충도국제도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3월 건본주택을 개관하고 '충도 더샵 센트럴시티' 분양을 시작했다.

플럼산업은 충남 천안시 불당동 일대에서 '불당 플럼 아이원'을 이달 분양할 예정이고 GS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동서2지구 총 5개 블록에 5705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서울 아파트값 26주 연속 상승...6년여만에 최장

전세수요 매매전환 꾸준히 이어져

서울 아파트가격이 2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1% 오르며 26주(1월 1주차-7월 1주차)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27주 연속 상승했던 2009년 3월 4주차부터 9월 4주차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이 꾸준히 저가 매물 거래 이후 오른 가격에도 거래가 지속되면서 매매가격을 끌어 올리는 모습이다. 재건축아파트 역시 매도자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간헐적인 거래가 이뤄지며 이번 주 0.18% 상승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인천은 0.05% 올랐다.

서울은 △관악(0.27%) △강서(0.25%) △강남(0.17%) △양천(0.14%) △구로(0.13%) △영등포(0.12%) △동대문(0.11%) △송파(0.11%) △노원(0.10%) 순으로 상승

했다.

관악은 봉천동 대규모 단지의 매매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신도시는 평촌(0.07%) △광교(0.05%) △산본(0.04%) △일산(0.03%) △반당(0.02%) △중동(0.02%) 순으로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은 0.28%, 신도시는 0.04%, 경기-인천은 0.07% 각각 상승했다. 계절적 비수기로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전세매물이 워낙 귀하다.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높은 가격에 매물이 출시돼도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합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사상 최저 금리 기조에 LTV, DTI 규제완화 연장 등으로 가계 빚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올해 하반기 중 미국이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면서 "1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7/6 (월)	접수	세종	세종시	다정동	세종2-1생활권중흥S-클래스센텀시티(L2) 2순위	1577-2264
					세종2-1생활권중흥S-클래스센텀시티(M2) 2순위	1577-2264
	발표	세종	세종시	새롬동	세종2-2생활권M2(공공임대)	1600-1004
					고양상송화성파크드림PATIO (~7/8)	02)381-5922
7/7 (화)	계약	경기	용인시	구갈동	기흥역센트럴푸르지오 (~7/8)	031)542-4000
					경기	용인시
	접수	경기	부천시	옥길동	부천옥길SI(공공분양) 1순위	1600-1004
					경기	오산시
7/8 (수)	발표	경기	수원시	원천동	광교아이파크(C3)	031)224-8900
					인천	서구
	계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태우미소가 (~7/9)	1600-1331
					경기	광주시
7/9 (목)	접수	경기	부천시	계수동	부천계수하이 (~7/9)	031)766-7700
					경기	부천시
	발표	경기	부천시	상동	부천3차아이파크 2순위	1600-0336
					경기	부천시
7/10 (금)	계약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호매실모아미래도센트럴타운(C-1) 1순위	031)215-1700
					경기	수원시
	발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광명리자이	1661-7654
					경기	김포시
7/10 (금)	접수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호매실모아미래도센트럴타운(C-1) 2순위	1600-1004
					경기	수원시
	발표	세종	세종시	다정동	세종2-1생활권중흥S-클래스센텀시티(L2)	1577-2264
					세종	세종시

※(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자료: 부동산114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21개 사업장에서 1만3746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서는 9999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경기지역의 분양물량이 풍성하다. 부천시 '부천 옥길SI(공공분양)' 1318가구, 화성시 '송산신도시반도 유보라아이비파크' 980가구, 수원시 '호매실모아미래도

도센트럴타운' 1452가구 등 7389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은 거제시 '아주동협성휴포레', 대전시 '금강로하스 엘크루' 등 3,747가구가 분양 대가중이다. 이외 부산 '물든뷰센트럴파크', 광교신도시 '광교더샵' 오피스텔 물량도 눈여겨볼 만하다.

박태진 기자 tjiippo@

날마다 편안한 날이 펼쳐집니다.



# 건강의 시작은 편안함입니다.

날마다 편안하게

이연 보충용 제품

효모아연 + 복합효소(부원료)

건강효모에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한 이연을 함유한 제품으로 부원료로 복합효소 300mg을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편안하게, 온가족을 위해 선택하세요.

※ 가까운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나보세요.



# “中증시 추락 막아라” 2차 부양책 쏟아

중국증시 폭락에 비상이 걸린 중국 정부가 기업공개(IPO) 중단 등 긴급 처방전을 또 내놨다.

중국 국무원과 인민은행-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독) 등 관련 당국 고위 관리들은 지난 4일(현지시간) 긴급 회의를 열어 최근들어 연일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당국은 기업공개(IPO) 승인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물량 부담에 따른 증시 하락 압박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상하이와 선전거래소 등에서 IPO를 계획하고 있던 28개 기업이 이날 일제히 상장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한 소식통은 “증시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된 가운데 유동성을 유지하고자 고위층이 IPO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로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시장 안정을 위해 IPO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 중단 조치는 2012년보다 더 많은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계획했던 IPO들이 모두 실행됐다면 최대 4조 위안의 자금을 끌어모

상하이증시 연고점 3주 만에 시총 3370조원 증발  
국무원·인민銀行 등 신규 IPO 28개사 중단 긴급처방  
21개 증권사, 22조원 규모 증시안정화기금 조성도



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큼 이번 조치로 물량 부담을 덜 셈이다.

다만 IPO 중단 효과가 얼마나 같지는 미지수다. 이전 IPO 중단 조치의 약발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4개월까지 갔다고 WSJ는 설명했다.

증권사들도 중국증시 살리기에 나섰다. 중국증권업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증시진

권 등 21개 증권사가 지난달 말 기준 순자산의 15%에 해당하는 총 1200억 위안(약 22조원)을 투입해 증시안정화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우량주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된다. 또 증권사들은 상하이종합지수가 4500선 밑을 유지하는 한 자체 주식보유 규모를 줄이지 않기로 했다. 최

소 1년은 보유한다는 방침이다. 상장 증권사는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모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성명은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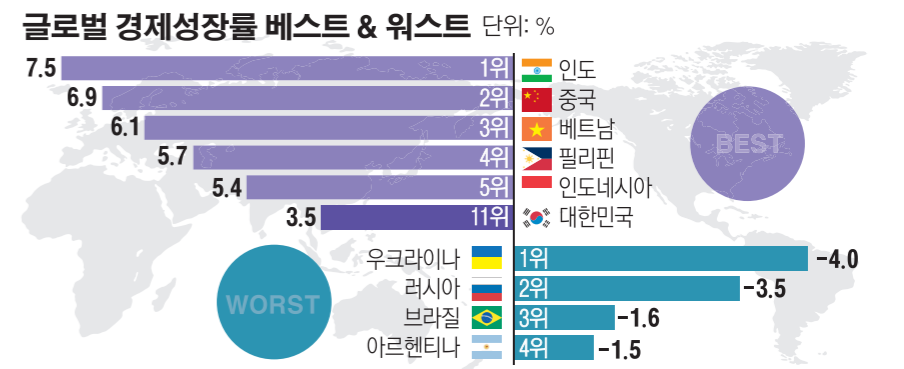
투자펀드 등으로 구성된 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주식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증시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국과 증권업계의 노력에도 증시가 살아날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우량주는 혜택을 입겠으나 거품이 낀 소형주와 IT주는 붕괴 현상이 계속돼 부양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3일 5.8% 급락한 3686.92로 마감해 3700선이 붕괴했다. 지수는 지난달 12일 기록한 연고점 이후 28.6% 빠지며 3주간 낙폭은 지난 199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 기간 중국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3조 달러(약 3370조원)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이는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주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1차 조치에도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셈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4분기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 ‘코끼리’ 인도, ‘용’ 넘는다

인도 7.5%로 중 6.9% 앞질러  
한국 3.5% 전망 11위 올라  
우크라이나 -4.0% 역성장 최악

올 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에서 열 한 번째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 4분기 전세계 47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조사하고 최고와 최악의 순위를 매겨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 국가는 인도였다. 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국가로는 우크라이나가 선정됐다. 인도의 4분기 GDP 성장률은 7.5%,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4%로 예상됐다. 중국은 6.9%로 인도에 1위를 내주고 2위에 올랐다. 한국은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11위에 올랐다.

이번 경제성장률 순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국가는 이례적으로 3위를 차지한 베트남(6.1%)이었다. 신흥국가인 베트남은 최근 51개 규제 산업을 6개로 줄이고 100개

이상의 사업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이외에도 해외 투자자 유치에 힘써 6.2%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미 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로 각각 1.6%,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국가 중 상위권에 기록됐다. 특히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조사 당시보다 크게 하락했다.

‘최저환율제’ 폐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스위스는 0.1% 성장으로 최악의 국가 5위에 올랐다. 지난 1월 스위스 중앙은행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양적완화(QE)에 대비하고자 유로 대비 스위스 프랑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최저환율제를 폐지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악재 중 하나인 그리스의 GDP 성장률은 0.9%로 전망, 최악의 국가 중 8위를 기록했다. 5일 실시된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국제재판단의 협상안 수용 여부를 가르는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반대에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했다. 이에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이탈하는 ‘그렉시트’에 대한 현실성이 커졌다. 정혜민 기자 haemin2558@



남미순방길 오른 프란치스코 교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공항에서 5일(현지시간) 라파엘 코레아(오른쪽) 에콰도르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갑게 포옹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부터 8일간 남미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그는 에콰도르의 키토와 과야quil을 방문하고 나서 8일 볼리비아로 이동한다. 최초 남미 출신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남미 공식 방문은 2013년 취임 이후 두 번째다. 키토/로이터연합뉴스

## 日, 조선인 강제동원 국제무대에서 첫 인정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을 포함한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유산군이 5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날 독일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 조선소를 포함해 규슈와 아마구치 지역 중심 근대화 산업시설 23곳을 하나로 묶어 등재 신청한 산업유산 시설들을 ‘일본 메이지 산업 혁명-철강, 조선 그리고 탄광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재된 산업유산 23곳 중 총 7개소는 태평양전쟁 중에 조선인이 대규모로 강제동원된 곳이다. 정부가 과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7개소에는 약 5만7900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동원됐고, 이 가운데 94명은 사망, 5명은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을 놓고 막판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유네

스코 등재가 결정된 직후 일본 대표단은 세계유산위에 “일본 정부는 해석전략(interpretive strategy)에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조선인의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후속조치와 관련, 2017년 12월1일까지 세계유산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세계유산센터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2018년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경과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등재 결정 후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생각한다. 선인들의 위업을 전하는 이 멋진 유산의 보존과 다음 세대 계승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강제동원 인정에 대한여

메이지 산업혁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23곳 중 총 7개소 조선인 강제동원 시설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5일(현지시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하시마.

론이 확산될 무렵 기사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자국 산업혁명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앞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일본이 강제노역 사실을 처음 인정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한 만큼, 향후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수출가 내린 대기업들... 왜?

최근 8개월간 수출물가지수 3.6% 하락  
시장점유율 확대로 생산·설비투자 피해

엔저에도 마진 확보를 우선시해 해외시장 수출 가격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일본기업들이 엔저가 장기화하자 수출가격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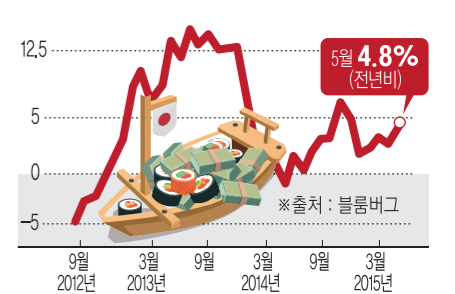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8개월간 일본의 수출물가지수는 3.6% 하락했다. 그 가운데 승용차가 1.5%, 소형 승용차는 4.0%,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3.1%, 반도체 메모리가 9.0% 각각 떨어졌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이에 연동하는 철강 및 화학제품의 동반 하락도 수출물가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 기업의 엔화 마진을 늘리는 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제조회사가 미국에 자동차를 3만 달러(약 3400만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할 때, 달러-엔 환율이 80엔에서 120엔으로 오르는 등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 3만 달러짜리 자동차 값은 엔화 기준으로 240만 엔에서 360만 엔으로 쏠린다.

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이런 마진 이익을 수출가격 할인의 재원으로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엔화 약세는 지난 2012년 가을부터 시작됐으나 초기에는 기업들이 수출

### 일본 수출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10월 일본은행(BOJ)의 추가 통화정책 완화로 달러당 엔화 가치가 120엔대까지 하락하면서 기업들이 엔화 약세의 장기화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수출 물량이 커지면 일본 내 생산과 설비 투자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다만 해외경제의 향방이 이런 긍정적 시나리오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가 동남아 시장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하면 가격을 낮추고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게 되기 때문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KFC·맥도날드 “결제수단 다양화”... 中소비자 잡는다

맥도날드, 모바일시스템 테스트 준비  
암브랜즈, 알리바바 ‘알리페이’ 제공

KFC와 맥도날드 등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중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맥도날드의 경우 최근 모바일 시스템을 맥도날드와 KFC를 거느린 암브랜즈는

중국에서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최근 수년간 영업체제를 겪었던 중국 시장에서 다시 부활하겠다는 계획이다.

맥도날드의 경우 최근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해 주문과 결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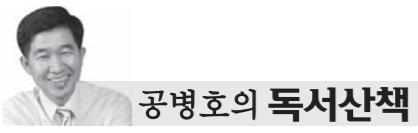
파일럿 프로그램을 3분기에 테스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빠른 주문과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맥도날드 측의 설명이다. 맥도날드 대변인은 “중국인들의 생활 패턴이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맥도날드도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맥도날드는 최근 상하이 내 2개 지점에 무인점보안달기(키오스크)를 도입하기도 했다.

암브랜즈는 자사업체 KFC를 통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암브랜즈는 중국 최대 IT제인 알리바바그룹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암브랜즈는 지난달말부터 중국 내에 있는 4500개 매장 가운데 700개 매장에 우선적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통해 주문하고자 하는 메뉴의 바코드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산업분석가들은 “서비스업들은 8억85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의 모바일 사용자들을 선점하기 위해 더 많은 시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세계적인 유통업체 월마트도 중국 내 일부 매장에서 ‘알리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공병호의 독서산책

스티븐 존슨,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이 정도로 진전되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균학이나 예방의학 분야의 기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런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인류가 걸어온 길고 긴 시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전 세계가 광범위한 교역망으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부터 인류는 전염병으로 고생해 왔다. 병균의 세계 여행은 133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흑사병이다. 1330년대 초에 아시아를 떠난 이 병은 1340년대에 흑해와 지중해에 도달했으며, 1340년대 후반에는 유럽 내륙지역과 서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퍼져 간다. 이 때문에 페스트가 강타한 피렌체는 인구 11만 명에서 4만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페스트가 정복되기 시작한 것은 19

년 덕분이었다. 이렇게 해서 로마시대에 장유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원래 혁신은 장유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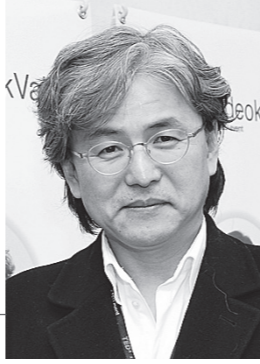
1204년 콘스탄티노플 약탈 사건으로 소수의 유리 제조인이 동쪽으로 이주해 베네치아 정복에 정착하면서 현대 유리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1291년 화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베네치아 정부는 무라노섬에 유리 제조인들을 집단적으로 거주시킨다. 밀집된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치면서 유리 제조 공법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정에 버금가는 투명도를 가진 '크리스탈로'라는 현대 유리가 탄생하게 된다.

이런 혁신은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새로운 혁신 제품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안경이다. 12-13세기 수도원에서 필사본을 공부하던 수도사들은 굽은 유리덩어리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바꾸는 수학

박형주

포스텍 수학과 교수



지난 2003년에 뉴욕시는 공립학교 배정 방식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이전에는 학생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 다섯 곳을 써내면 학교가 순차적으로 선발 여부를 결정했는데, 여러 문제로 학교와 학생 모두 불만이 많았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학생이 하나의 학교만 적어낸다. 각 학교는 지원자 중에서 원하는 학생을 수용한도 내에서 선정한다. 떨어진 학생들은 다시 하나의 학교를 적어내고 이 과정은 반복된다.

뭐가 다른 걸까? 일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적응하지 못해서 중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불필요한 전학으로 인한 비용도 줄게 된 학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이 새로운 배정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엘빈 로스 교수다. 그는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UCLA의 수학자 로이드 새플리 교수와 함께 201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뉴욕시의 새로운 학교 배정 방식은 새플리와 로스의 수

수학의 유리알 유희

학적 입적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다.

경제적 자원을 시장 구성원에게 배정하는 문제에서 안정적인 평형 상태에 다다르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원래 출발점이었다. 여기서 안정적 평형 상태란, 그 배정 결과를 조금 바꾸고 자 시도하면 어떤 구성원이 크게 손해를 보는 등의 이유로 변경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학교 배정 문제에서는, 학생의 전학이 없지는 상태다.

원래는 새플리 교수가 수학자 데이비드 게일과 함께 제안한 수학 알고리즘이었던 게일-새플리 짝짓기 알고리즘을 로스가 각종 경제현상과 사회문제에 적용해 그 유용성을 입증했다.

자원 배분 문제를 시장에서 자원과 구성원의 짝짓기 문제로 본다면, 최적의 짝짓기는 안정적 짝짓기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배분 상태에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것은 아니지만, 작은 변경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원래대로를 선호하는 상태다. 배정의 반복 과정을 통해 반드시 안정적 짝짓기에 다다를 수 없을 수 없는 명징성(明證性)으로 증명할 것이 노벨상 수상 이유다.

결혼 상대를 찾는 미혼 남녀들의 짝짓기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안정적 짝짓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안정적 짝짓기는,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눈이 맞는 불상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최초의 호감 순위가 바뀌지 않는 경우인데, 이 연구 결과가 이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수학이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산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수학은 만나본 적이 없다는 분들은 이런 것도 수학이냐고 할 만하다. 원래 고대 문명에서 사냥감의 수를 세거나 농사의 절기를 결정하는 문제로부터 수학이 시작됐으니,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게 아니다.

수학이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최근 사례로 빅데이터 열풍을 들 수 있다. 빅데이터와 최적화 이론으로 대중교통 노선과 배차 일정을 뒤집으면 도시 교통문제도 상당히 해결된다.

조류독감이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의 감염경로 예측도 가능하다. 구글은 시황착오 끝에 2012년에 유튜브의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별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인공지능 시대가 훌쩍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1877-1962)는 소설 '유리알 유희'로 194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유리알 유희'의 주인공은 학문의 순수함으로 가득한 유포피아에서 명인의 경지에 올랐으나 이를 세상과 나누고자 시장통 같은 세상으로 나간다. 21세기의 수학은 산업과 사회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한복판에 이미 와 있다.

- 서울대 물리학과 조. 미 버클리대 대학원 수학과 박사.
- 미 오렐랜드대 수학과 부교수,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교수 역임.
- 2014 국제수학자대회 조직위원장.

벌새효과, 혁신이 꼬리를 물다

세기 말 파스퇴르가 균을 발견했을 무렵이다. 이 책은 마저 스포츠 경기를 실패 중계하듯 현대인의 오늘이 있기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친 6가지 혁신의 전개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유리, 냉기, 소리, 청력, 시간 그리고 빛과 같은 혁신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떻게 진화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고 있다. 모든 혁신은 전혀 예기치 못한 효과를 낳는다. 특정 혁신이 일어나고 난 다음 다른 혁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결과 이른바 벌새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 벌새효과는 한 분야의 혁신이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한 변화를 낳게 되어 견집할 수 없는 변화의 파도가 일어남을 뜻한다. 정책이 낳는 혁신처럼 어떤 벌새효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벌새효과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

6가지 혁신 사례 중 유리를 살펴보자. 우리가 장식을 넘어 첨단 테크놀로지의 재료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로마제국의 전성기였다. 당시 유리 제조인들이 투탕카멘의 흉명처럼 자연 상태에서 형성된 유리보다 이산화규소 조각을 더 단단하고 맑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

가면서 글을 읽게 된다. 이 유용한 혁신품의 가치가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1440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독서가 일반인의 삶에 퍼지면서부터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자신이 눈이 나쁜 원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안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인쇄기가 발명된 뒤에 일어난 현상이야말로 현대사에서 벌새효과와 생생한 사례다. 거대한 안경 시장이 형성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인 현미경이 탄생한다. 현미경은 또 다른 혁신인 망원경과 거울을 낳는다. 저자는 우리에게 말한다. "인간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롯한 현실 세계를 또렷하게 비추줄 수 있게 해 준 테크놀로지가 없었다면, 예술과 철학과 정치에서 특별한 사상이 무수히 꽃피웠던 르네상스의 탄생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혁신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혁신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생각해 보게 하는 멋진 책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생각 7월 6일

斗酒不辭(두주불사) 말술도 마다하지 않는 호주가

말술도 마다하지 않고 많이 마시는 것을 두주불사(斗酒不辭)라고 한다. 진정한 술꾼은 시간과 장소, 주종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역시 많이 마시는 게 첫째 조건일 것이다.

두주불사는 사마천의 '사기' 항우본기(項羽本紀)에서 유래된 말이다. 진(秦)나라 말기, 초왕(楚王) 항우와 폐공(沛公) 유방(劉邦)은 수도 함양(咸陽)을 향해 각기 진격했다. 함양을 선점한 사람이 관중의 왕이 되기로 했는데, 먼저 입성한 것은 유방이었다. 그러나 그는 군사력이 항우에 미치지 못하자 재물과 공물을 그대로 둔 채 패상(覇上)으로 물러나 진을 쳤다. 유방이 뒤져

노한 항우는 유방군이 지키는 함곡관(函谷關)을 깨뜨리고 들어와 신평(新豐)의 흥문(鴻門) 산자락에 포진했다. 이때 군사(軍師) 범증(范增)이 속히 유방을 제거하라고 권했다. 유방을 죽일 목적으로 연 모임이 유명한 흥문의 연(宴)이다. 연회가 한창일 때 범증의 지시를 받은 항장(項莊)이 흥을 돋운다며 검무를 추며 찌르러 하자 유방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항우의 숙부 항백(項伯)이 끼어들어 방어했다. 유방의 책사(策士) 장량(張良)은 급히 변책(變策)을 찾아 패공이 위험하다고 알려주었다.

변책은 안으로 뛰어 들어가 찌어진 눈을(曠)으로 물러나 진을 쳤다. 항우는 그 기상을

가상히 여겨 말했다. "장사로구나. 술 한 잔을 주어야." 큰 잔에 술을 부어 주자 변책은 단숨에 들어가고는 의하지 않은 돼지 다리를 썰더니 그대로 씹었다. 항우가 "장사로다. 더 마실 수 있겠는가?" 하자 변책은 "어찌 술 한 잔을 사양하오리까?" 하고 더 마셨다.

두주불사는 본래 장수들의 기개를 표현하던 말이었으나 술이 센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다. 항우는 결국 유방을 살려 주었다. 이때 범증이 한 말이 저 유명한 "예송이하고는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賢者不足與謀]였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온라인 와글와글



자동차 담보대출 4년새 12배 경증...차라리 차를 팔지

○...자동차담보대출 규모가 2010년 443억원에서 지난해 5205억원으로 4년 새 1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연 20%대의 고금리 이자를 내지 못해 담보로 맡긴 자동차를 뺐기는 일도 갈수록 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그래도 말길 차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돈은 없어도 차는 좋은 거 타는 모양이네. 차로 담보대출이라

니", "1000만~2000만원 여유도 없으면서 차는 왜 팔고 다니냐?", "세상에서 가장 한심해 보이는 인간이 원통 빌라에서 싸구려 외제 중고차 타는 인간들이다", "체면 때문에 남 따라 가다가 패가망신한다. 어쨌든 빚 없이 살아야 자기 형편에 맞는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은총 기자 kec@

오늘의 BAE [www.baekn.com](http://www.baekn.com)

'다쳐' 들고 돌아온 나인뮤지스



미국남닷컴은 최근 활동을 재개한 걸그룹 나인뮤지스를 만났다.

이날 나인뮤지스는 "생각보다 컴백이 늦어져 아쉬운 마음이다. 높은 질의 음반을 갖고 나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 지금 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니 설렌다"며 컴백 소감을 밝혔다.

나인뮤지스의 타이틀곡 '다쳐'는 세련된 팝 사운드의 곡으로 나쁜 남자의 모습에 마음을 다친 여자가 독하게 변해 간다는 노랫말이 특징이다.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Catch Me If You Can' 등을 제작한 프로듀서 에릭 리드블과 허비 크리크로우, 앤 주디스 워의 곡으로 프로듀서 e.one이 편곡을 맡았다. 나인뮤지스 민하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뜨거운 여름 신곡 '다쳐'로 더욱 열정적으로 데뷔 드릴 것"이라며 신곡 활동에 대한 각오를 드러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알에스스포츠 TEL. (02)3280-9607

데스크 칼럼

대통령 업무보고와 골든타임

요즘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분주하다. 대통령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내년 4월 총선까지 선거

하지만 이 정권의 운이 지지리도 없지 않다면 인재인지 모르지만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각 부처 업무 성과를 파악해 장·차관을 질책할

각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다 경제활성화



신 동민 세종취재본부장

공공기관 개혁이나 부정부패 척결만 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실은 어떻게. 공공기관의 성과도 좋지 않다 보니 공공기관

되기 때문이다. 현재 LH가 적자 나는 다른 부문 사업의 성과를

물론 민간기업에 건설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

지난해 3월 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장관 7시간 열었던 규제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각 부처 주요 업무 현안을 챙긴다

설경진의 루머속살

자본시장부 차장

우리 안의 양치기 소년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모습은 가장 공신력 있어야 할 정부 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검찰의 결론은 일반 소비자를 더욱 당황케했다.

만약 소비자보호원이 선부르게 '가짜 백수오'라고 밝히지 않고

진실을 둘러싼 공방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어 왔다.

이 때문일까. 요사이 인기있는 곡들은 그저 한때 소비되는



고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진실은 거짓이 아닌 사실,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을 일컫는 사회적 자본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정부, 대기업 등이 '양치기 소년'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대기업 등이 '양치기 소년'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 달성만 하면 그만인 행태는 반드시

죽음을 당했다. skj78@

개성 김대성 LS그룹 홍보팀 과장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7포 세대'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나와 내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결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 않는다.

기업인은 장기 불황과 사정(同正)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잔뜩 어깨가 움츠러들고,

사건 사고도 유난히 잦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이라는 비극으로 인한

레가 마음 한쪽을 자극하기도 한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책임을

다만 이렇게 힘든 때 일수록 우리는 자신보다 더 힘들고

최근 읽었던 책의 한 글귀가 더욱 마음에 외 닿는다.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네루가 한 이 말처럼 지금 우리는

기자수첩 오예린 문화팀/yerin2837@
'도inken' 걸그룹 대전

씨스타, AOA, 나인뮤지스를 비롯해 걸스데이, 소녀시대

컴백하는 그룹들은 신곡을 홍보하면서 중독성 강한 후크송과

이들 그룹은 새 앨범을 공개하는 쇼케이스에서 지난 앨범보다

던 작곡가와 새로 손을 잡은 경우다. 이 역시 다른 그룹의

결국 걸그룹들이 대중에게 줄 수 있는 차별화는 노출의

이 때문일까. 요사이 인기있는 곡들은 그저 한때 소비되는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혁
www.etoday.co.kr

지금의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조금은 힘들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전하는 마음 처방전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면세점이 물건을 구입하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투데이 DB

# ‘황금알’ 시내면세점 주인공, 7월 10일 베일 벗는다

7월 10일

## 서울 시내 면세점 유치 大戰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선정 결과가 10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내면세점 유치전에 뛰어들어 기업들의 막판 레이스가 흥미진진하다. 이미 지난달 각 업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면세점 청사진을 사업계획서 형태로 제출했고, 관세청은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까지 마친 상태다. 관세청은 이 번주 9일과 10일 양일간 신청기업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등을 거쳐 10일 곧바로 결과를 발표한다. 업체들은 관세청의 발표가 나오기 직전까지 면세점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막판 홍보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막판 승부수 올인... ‘내가 적임’ =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은 그룹 오너들까지 총출동하는 등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심사위원회의 배점이 높은, 기업의 사회 환원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부합된 자신들만의 계획을 발표하며 차별화 전략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는 모습이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내 면세점 유치를 위해 함께 설립한 합작 법인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지방자치단체, 용산전자상거래협회, 코레일과 함께 ‘K-디스커버리(Discovery) 협력단’을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부진 시장과 정몽규 회장이 직접 참석해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한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 시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호텔신라가 적임자라는 점을 말아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

신세계는 서울 중구청과 함께 남대문 시장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총무로 본점 앞 분수대를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분수대를 중심으로 인근의 근대건축물과 남산, 남대문 시장 등을 새로운 관광지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

대기업 7곳, 티켓 2장 놓고 경쟁  
중견·중소는 1곳에 14개사 각축

이익 사회환원·관광산업 활성화

특화전략 내세우며 막판 홍보전

2014년 시내면세점 매출 5.4조  
전체 면세점의 65% 차지 ‘알짜’

을 맺고 콘텐츠사업 발전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여의도 63빌딩에 면세점을 유치하는 한화갤러리아는 신진 디자이너와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 면세점과 백화점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가 다른 입지보다 관광객 유치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노랑진 수산시장, 여의도 붓꽃축제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통근 체질 개선과 신기술 접목 = 서울 강남 코엑스를 후보지로 정한 현대백화점은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면 영업이익의 20%를 매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통상 상장기업의 평균 기부금 비율이 영업이익의 1%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의 20% 사회 환원은 과격적이라는 평가다.

이랜드는 지난달 21일 중국장애인기업회와 함께 기념식을 열고 이랜드 장애인 전용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을 부각, 시내면세점의 가장 큰 고객인 중국에 남다른 정성을 쏟는 모습이다.

동대문에 동지를 틀기로 한 롯데면세점은 국내외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SK네트웍스도 동대문 캐슬타워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SK그룹 계열사단계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면에 내

세운 면세점 홍보에 나섰다. SK텔레콤이 보유한 ICT 기술과 SK플래닛의 소비자 중심 채널 등을 이용한 면세점 사업계획을 부각시키고 있다.

◇시내면세점의 두 얼굴... 황금알이지만 변수 많아 = 국내 면세점 시장은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지난 2010년 4조5000억원이던 시장 규모가 2011년 5조3000억원, 2012년 6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 지난해 8조3000억원 등으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 중 시내면세점 매출액(2014년)은 5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앞잡이다.

하지만 시내면세점 특허를 따냈다고 해서 곧바로 돈방석에 앉는 건 아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고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끊은 게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6월 8-14일 시내 면세점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감소했다. 이 기간 공항면세점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신라면세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메르스는 특별한 경우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국인의 재 방문율이 25%밖에 안된다”며 “각종 변수와 중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관광전략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 지역상권 살리고 교통 편리한 곳 높은 점수... 기존 사업자 점수획득 유리

### 선정 기준은

‘강북 vs 非강북’·신규 vs 기존’ 구도

관리역량 등 5개 항목에 1000점 만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제시한 기준에 가장 근접한 곳은 어디일까. 관세청이 제시한 면세점 입지 선정기준은 지역균형발전, 지역상권 활성화, 교통접근성 등이 가장 중요하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 심사평가에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정도(150점) 등 크게 5개 항목이 고려된다. 총 1000점 만점이며 각 항목별로 2-5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두고 있다.

관세청은 일반경쟁입찰 2곳, 중소중견기업 1곳 등 신규 특허를 획득하는 기업만 알리고, 세부적인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총 3곳의 신규면세점이 고용과 투자를 촉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란 관세청 측 설명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강북과와

비(非)강북과,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세계·호텔신라·롯데호텔은 명동·용산·동대문 등 강북 지역을, 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이랜드는 각각 강남·여의도·홍대를 면세점 후보지로 최종 선택했다. 관세청이 면세 사업의 흥행을 중시한다면 강북을, 서울 관광산업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면 비강북권을 신규 면세점 입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면세점 사업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은 용산 아이파크몰을 면세점 입지로 정했다. 이곳은 KTX(한국형 고속철도) 역사와 연결돼 교통이 편리하다. 강북과 강남은 물론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화갤러리아는 서울 서남권 지역을 새로운 관

광지로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여의도 63빌딩을 면세점 후보지로 선정했다. 현대백화점은 기존 면세점이 강북에 포진한 만큼 나흘로 강남행을 선택, 무역센터점으로 정했고 이랜드 역시 서부권에 유일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관세청 제정 기준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사업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경영능력에서 앞서면 총 배점 1000점 중 550점을 유리하게 획득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들은 면세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가 신규 면세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거나 서울에 면세점이 없는 기업들은 행정성 차원 및 독과점 논란을 고려해 기존 업체들에 면세 사업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선애 기자 isa@

### 신규 시내면세점 심사평가표

※자료: 관세청

평가 기준	배점
✓ 특허보세 구역 관리 역량	250
✓ 운영인의 경영 능력	300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150
✓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
✓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150
<b>총점</b>	<b>1000점</b>



# 9~10일 운명의 프레젠테이션... 차별화 전략 승부수

## 서울 면세점 일반경쟁입찰 나선 7개사

서울지역 면세점 2곳에 대한 일반경쟁입찰(대기업 대상)에 나선 곳은 총 7개 기업이다. 신규 특허를 차지하기 위한 막판 경쟁은 이제 오는 9~1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업계획발표(프레젠테이션-PT)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업체들은 PT 전담팀을 꾸려 평가단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한 최후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PT는 신세계DF를 시작으로 현대DF-한화갤러리아-SK네트웍스-이랜드-롯데면세점-HDC신라면세점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PT에는 입지와 규모, 상생, 관광사업 활성화 등 배점이 높은 부분에 자신들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 대표들이 직접 나서 평가위원들과 마주한다. 이에 앞서 이투데이는 시내면세점에 출사표를 던진 업체들의 시내면세점 특허 취득 전략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윤철규 기자 yoonck@



## 이랜드

### 홍대 상권 과감한 도전 상인들과 '상생 시너지'

이랜드는 서울 시내 마포구 서교동의 서교자이갤러리 부지에 면세점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면적 1만 4297㎡로 신축되는 서부권 최초의 차별화된 면세점이다.

홍대 지역은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대·신촌·홍대와 한강은 물론, K-컬처 허브인 상암동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새로운 면세점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게 이랜드 설명이다. 특히 최근 홍대와 신촌을 방문하는 젊은층의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이랜드의 신규 면세점 개설은 홍대 관광지구 개발에 있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만여명의 홍대 상권 상인들과 상생 프로젝트를 실행, 젊음의 거리 특징을 살린 차별화된 면세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외부 공간에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을 설치해 젊은 예술가들과 인디 밴드들의 공연이 매일 펼쳐지며, K-POP 스타들의 공연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젊음의 거리' 특징 살린 문화 중심형 면세점 완다그룹 여행사·듀프리와 3자협약 체결도

이랜드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과의 입지 차별화는 물론, 서울 서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랜드는 면세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의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았다. 지난 4월 중국 최대 여행사인 '완다그룹(WANDA Group)' 여행사 및 세계 최대 면세기업 '듀프리(DUFREY)'와 함께 이랜드 면세 사업 성공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전역에 11개 지사를 둔 완다그룹 여행사를 통해 연간 중국 VIP 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면세점은 완다여행사와 함께 기존 저가 쇼핑 관광으로 인식되던 한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다시 돌려놓고 추가 수요를 일으킨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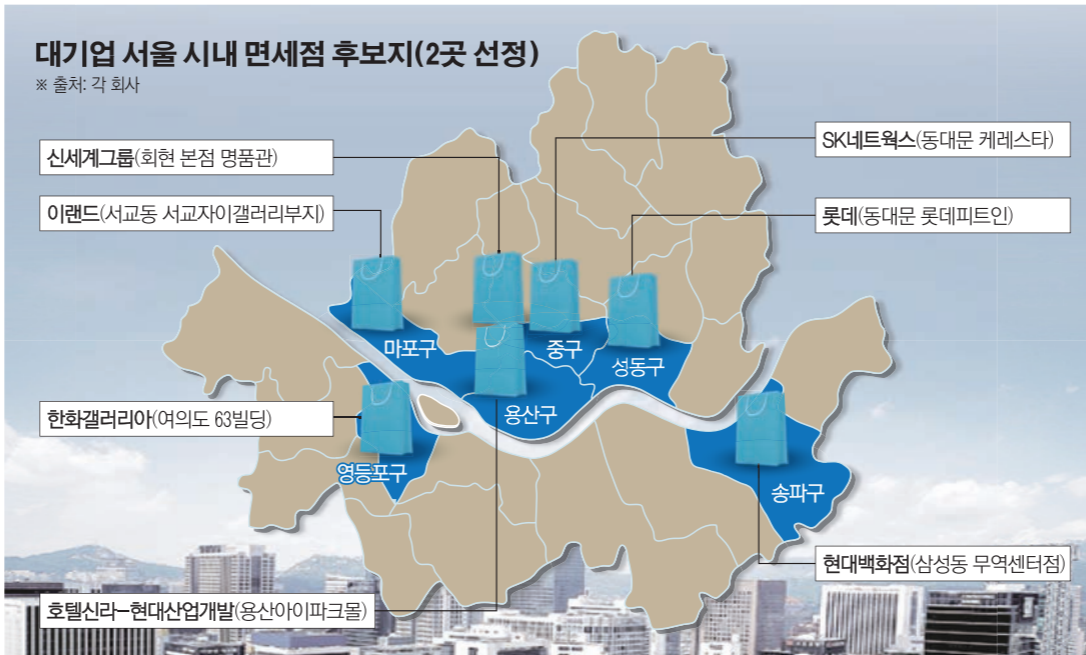
세계 면세 시장 점유율 25%인 듀프리는 면세 사업 경험이 없는 이랜드를 도와 면세 사업 운영 노하우를 지원하고, 글로벌 명품 소싱 능력을 활용해 면세점의 핵심 콘텐츠인 명품과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공급 부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룹의 6개 사업 분야인 의·상·주·휴·마·락 등이 면세점 사업에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 및 면세점 고객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 진출 21년 동안의 사업 성공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이번 면세사업 추진에 집중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인호 기자 kangin@



노중호 대표



## 한화갤러리아

### 63빌딩 면세점 한층을 中企특별관... 국내 브랜드 집중 노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 신규 사업권을 따낸 경우 63빌딩 면세점 3층 전체를 100개 이상의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로 구성할 계획이다.

63빌딩 면세점은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면세점으로 바로 출입이 가능해 편리하며, 지하 1층과 63빌딩 별관 1-3층 등 4개 층을 활용해 총 1만72㎡ 규모의 넓은 쇼핑공간을 자랑한다. 층별 구성을 보면 지하 1층(5396㎡) 럭셔리 뷰티·화장품, 1층(726㎡) 시계·주얼리 전문샵, 2층(1970㎡) 국산화장품·패션·잡화·담배·주류, 3층(1980㎡) 국산품 및 중소·중견기업 특별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4층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휴식·문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황득득 대표이사

###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100개 이상 입점 업계 최초 '홈쇼핑 전용 쇼룸' 만들기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특별관은 관광객이 4층 한강 테라스를 즐기기 위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핵심 동선에 위치해 있다"며 "동선의 '말뚝' 배치를 통해 국내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63빌딩 면세점의 전체 면적 중 국산 및 중소·중견 브랜드가 차지하는 공간은 총 3003㎡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34%를 차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3층의 경우에는 전체 공간을 'K-Special Hall(K-Special Hall)'로 구성해 중소·중견 기업의 100개 이상 브랜드 전용관을 선보인다. 또 각종마다 올 인 원 바이 갤러리아(All in One

## 신세계디에프

### 본점 명품관 파격 전환 프리미엄 문화 공간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선정을 앞두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신세계그룹이다. 신세계는 그룹의 상징인 서울 화현동 '본점 명품관(본관)' 전체를 시내면세점으로 파격 전환해 '프리미엄 면세점'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85년 역사를 가진 유통명가의 노하우를 총집결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프리미엄 문화 면세점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1호 전문시장인 남대문 시장의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며 상생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성영목 대표이사

신세계그룹은 면세독립법인인 '신세계디에프'를 설립하고, 본점의 면세점 전환과 동시에 850억원을 투자해 외국자본에 빼앗겼던 SC은행 제일지점도 되찾아 면세점 부속 건물로 활용기로 했다. 이 두 곳을 모두 활용하면 연면적 1만8180㎡(5500평) 규모의 초대형 면세점이 완성된다. 꾸준히 제기돼 왔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관광버스 80여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했다.

### 백화점·마트... 85년 유통명가 노하우 집결 명동·남대문·남산 잇는 '관광 올레길' 구축

신세계디에프는 프리미엄 문화 면세점 콘셉트로 구매력이 높은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프리미엄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신세계는 이를 위해 고객 편의시설 및 서비스 시설을 확대하고 VIP룸,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마련해 관광객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문화공연 및 전통문화 상품들도 선보여 쇼핑과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공간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선보일 계획이다.

남대문시장 옆 메사빌딩 10층에 있는 530석 규모의 팝콘홀은 한류공연장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고품격 시설과 문화콘텐츠를 함께 경험할 수 있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관광 인프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국내 1호 전문시장인 남대문시장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해 명동-신세계면세점-남대문시장-남산으로 이어지는 '관광 올레길'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3일 남대문시장 상인회, 중구청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세계는 남대문시장에 3년간 육성기금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관광안내·편의시설 개선, 외국인 유치 홍보·마케팅에 사용된다.

성 사장은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동상권의 경우 면세점 공급이 부족해 오랫동안 줄서서 쇼핑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이 같은 핵심상권에 차별화된 고품격 면세점을 선보여 시장을 키우고 관광산업 및 내수경기 활성화,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

by Galleria' 코너라는 중소·중견기업 베스트셀링 존을 구성해 고객이 중소·중견기업 상품을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63빌딩 면세점의 3층 'K-Special Hall' 내에는 다양한 테마별 MD 구성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영 TV 홈쇼핑과 NS 홈쇼핑에서 진행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인가상품을 선별·판매하는 '홈쇼핑 전용 쇼룸'을 면세점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 면세점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특산품, 한국 전통식품 및 수공예 장인들의 제품으로 '한국전통 명인관(Artisan-K)'을 운영해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관광명소로 구성할 방침이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황용득 대표는 "동반성장,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책임 있는 면세 사업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현대백화점그룹

# 대기업 중 유일하게 중견·中企와 합작법인 설립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면세점 후보지로 일찌감치 낙점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들과의 면세점 합작법인 설립, 면세점 영업이익의 20% 사회 환원 등 상생행 보도 이어가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중국 단체 관광객 중심의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고품격 면세점을 운영할 것”이라며 “외국인 면세 관광산업의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한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무역센터점 2개층을 리모델링해 강남권 최대인 약 1만2000㎡ 규모의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수용능력 증감 승인 이후 1개 층(약 5200㎡)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코엑스 단지는 지난해 말 전시·컨벤션(MICE)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컨벤션센터와 특급호텔(3개), 카지노, 코엑스몰(쇼 필름), 백화점, 원스톱 출국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또한 반경 5km 내 숙박시설(약 1만1000개 객실)이 풍부해 대다수 성형외과·피부과 병

## 국산품 매장 70% 할당... 안정적 판로 제공 강남권 입지로 숙박·의료·관광 인프라 풍부

원(480여개)이 밀집돼 있는 의료관광의 메카로서 관광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프리미엄 면세점을 만들기 위해 180여개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이미 루이비통, 구찌, 불가리 등 80여개 해외브랜드의 입점의향서(LOI)를 받은 상태다.

특히 외국인 비즈니스 관광객을 겨냥한 몽블랑, 단힐, 제나, 듀폰, 휴고보스 등 남성잡화 의류 중심의 MICE 명품관도 운영할 계획이 다.



이동호 사장

현대백화점그룹은 유통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 합작법인(주현대 DF)도 설립했다.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에 참여한 대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을 주주사로 참여시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한 건 현대백화점그룹이 유일하다.

또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안정적 판로 제공을 위해 면세점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 규모(2908㎡)를 국산품 매장으로 운영한다. 이 중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매장으로 꾸밀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최소 2년 이상의 매장 유지기간을 보장받는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롯데면세점

# ‘복합면세타운’ 운영 中企와 로열티 공유

35년의 면세점 운영 노하우를 가진 롯데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내놓고 시내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내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한 공간에서 독자적인 면세점을 운영하는 ‘복합면세타운’을 제시했다.



이흥균 대표

롯데면세점 동대문 피트인에 중면세점과 지상·지하 총 11개층, 1만2149㎡의 영업면적으로 복합 면세타운을 조성해 신(新)상생모델을 실현하고자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일 장소에서 복합 면세타운을 운영하면 영업 노하우를 직접 전수할 수 있으며, 면세타운 단일 콘셉트 적용으로 롯데면세점의 브랜드 로열티를 공유함과 동시에 취급 상품과 영업 매장을 구분해 중소기업자의 개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이흥균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복합 면세타운의 신상생 모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의 장을 열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취급상품·영업매장 구분 개별수익 보장 동대문 디자이너·SPA 브랜드 적극 유치

또한 동대문의 특성을 살려 동대문 디자이너 브랜드, 국산 SPA 브랜드를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매장에도 유치할 예정이다. 국산 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복합 면세타운에서 운영하는 국산품 매장은 전체 매장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며, 국산품 특화 매장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동대문 피트인 복합 면세타운이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쇼핑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동대문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7곳, 해외 5곳의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백화점처럼 매장마다 구획화된 ‘부티크 스타일’을 세계 최초로 시도해 아시아 면세점 매장의 표준을 완성한 바 있다는 점을 크게 내세우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의 면세점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 업계 최초로 해외 진출 점포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점은 운영 1년 만에 공항 매출 1위를 달성했다. 미국 팜 공항은 국내 업계 최초로 미주지역 진출인 동시에 해외 공항점 단독 유치 성공작으로 운영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롯데면세점 피트인은 개별 여행객의 쇼핑과 관광 문화를 아우르는 아시아 대표 면세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nova@



SK네트웍스

# ICT기술 특기 살려 ‘스마트 면세점’ 구현

SK네트웍스는 23년간 유통 면세점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살려 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입성을 노리고 있다. 특히 ‘면세점 3.0’으로 명명한 스마트 면세점과 최대 3000억원대의 지역발전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문중훈 대표

SK네트웍스는 동대문의 캐슬스타(구 커핑트레이) 빌딩을 시내면세점 입지로 선정했다. 캐슬스타 빌딩 지하 6층~지상 23층 가운데 지상 4개층과 지하 1개층을 임차해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SK네트웍스는 동대문이 한국 패션 사업의 중심지이자, 24시간 쇼핑이 가능한 관광특구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최고의 입지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서울시 관광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1위가 동대문(65.5%)으로 명동(65.1%)을 앞질렀다.

SK네트웍스는 신규 면세점에 ‘면세점 3.0’ 모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3.0’이란 SK의 정보통신기술(ICT)을

## 서울 전역 와이파이·종이없는 쇼핑 제공 동대문 상권 연계 ‘모바일 원패스’ 서비스

접목시킨 차세대 면세점 모델을 의미한다.

‘면세점 3.0’의 가장 큰 차별적 요소는 ICT 기술의 접목이다. SK네트웍스는 세계 최초의 ‘ICT 면세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협력해 동대문 면세점 고객들에게 서울 시내 전역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면세점 방문과 동시에 브랜드 이벤트 및 각종 할인쿠폰 등을 전달받아 ‘종이 없는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주변상권을 모바일 네트워크로 연계해 동대문의 다양한 상권 정보와 혜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모바일 원패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이와 함께 2000억~3000억원의 지역발전 투자계획도 밝혔다.

우선 동대문 일대에 1만명 관객 수용 규모의 초대형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타운 인프라 구축에 1000억~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야간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를 조성하는 데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600억원의 패션 소상공인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주변 평화시장을 비롯한 전통 재래 시장 활성화 위한 총 3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HDC신라면세점



지난 5월 25일 HDC신라면세점 출범식에 참석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신청자인 흥산아파트를 매장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호텔신라

# 강북·남 아우르는 세계 최대 도심 면세점 조성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심형 면세점인 ‘DF랜드’를 만든다. HDC신라면세점은 현대산업개발과 계열사 현대아파트가 각각 25%, 호텔신라가 50%의 지분을 출자하는 합작법인이다. HDC신라면세점은 총 6만 5000㎡의 면적을 면세점 사업에 활용해 동북아를 대표하는 거점형 면세점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강북과 강남 등 서울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 면세점을 표방하며 관광 산업의 확장성에 무게 중심을 잡았다.

HDC신라면세점은 세계 6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호텔신라의 면세점 운영능력과 현대산업개발의 복합개발 능력 간 시너지를 통해 최대 투자, 최대 고용, 최고 매출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총 면적 가운데 2만7400㎡에는 400여개의 브랜드가 들어서는 국내 최대의 매머드급 면세점을 세우고 나머지 3만7600㎡에는 한류 공연장과 한류 관광홍보관, 관광시장, 교통 인프라와 주차장 등의 연계시설을 조성한다.

28만㎡에 달하는 대형 복합쇼핑몰의 자원도 활용한다. HDC신라

## 현대아파트+호텔신라로 ‘시너지’ 쇼핑·숙박·공연...‘원스톱 면세관광’ 실현

면세점은 아파트에 들어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자상가, 식당·커피숍 등은 면세점을 중심으로 통합 마케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연결통로로 직접 연결되는 1700여 객실의 국내 최대 비즈니스 호텔 단지가 완공되는 2017년 HDC신라면세점은 쇼핑과 관광, 식사, 숙박, 주차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면세관광’을 제공할 전망이다.

더불어 서울 중심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명동과 종로, 신촌, 강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서울 관광의 ‘베이스캠프’의 역할도 해나갈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guty@

# 면세점 티켓은 단 1장... 중소·중견기업 14곳 '불꽃' 튜다

## 유진디에프앤씨

### 탄탄한 재무구조 바탕 '문화면세점' 추진



구자영 대표

◇유진디에프앤씨, 입증된 경영능력·신개념 면세점 =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든든한 투자여력과 새로운 개념의 고객 유인책을 갖추고 있다.

유진기업은 자산총계 9446억원(이하 지난해 개별 기준)과 매출 4840억원을 기록했고, 부채비율은 82.14%·자기자본비율 54.8%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어 관리 및 경영 능력이 이미 입증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단순한 쇼핑 위주의 면세점을 넘어 신개념 문화면세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류 콘텐츠의 대표적 해외발신 거점이었던 옛 MBC 사옥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존 MBC 사옥에 있는 방송시설 등을 업그레이드, 한국의 방송·연예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세종면세점

### 쇼핑 중심 명동에 자리... 관광상품 연계



최승구 대표

◇세종면세점, 최적의 접근성·복합문화쇼핑 스타일 = 쇼핑의 중심 지역인 명동에 위치, 최적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또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테마관광 상품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면세점은 명동 중심지에 위치한 세종호텔 내 1000평 규모로 1-3층을 면세점 판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특1급 자기보유 호텔건물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적인 면세점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다. 또 호텔 내에 있는 면세점인 만큼 갤러리·옥상 정원·로비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있다. 특히 특급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쇼핑·휴식 및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복합문화쇼핑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 청하고려인삼

### 인삼 박물관 개관... 국산 인삼 전문 홍보



이용희 대표

◇청하고려인삼, 대한민국 특산품 인삼 면세점 = 우리나라 인삼을 하나의 문화적 가치로 인식하고, 인삼 제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면세 판매장을 추진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자체 건물 2층에 300평 규모의 고려인삼박물관을 개관했으며, 지하 1층은 한국 현대 미술갤러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됐으며, 추후 지상 1층에 인삼을 테마로 한 카페(88평)와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전통공예기술 전시관(231평)을 준비 중에 있다.

회사 측은 "고려인삼박물관과 문화·예술 갤러리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탄탄한 문화상품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흥선건설

### 국산품 40% 취급... 수익 전액 지역 환원



이윤하 단장

◇신흥선건설, 주주로 참여... 진정한 사회 환원 = 신흥선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동대문 소상공인들이 모인 '제일평화 컨소시엄'은 400명이 넘는 제일평화의 주주들과 수천명의 임직 상인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펀딩 형태로, 면세점 개설 투자 소요자금의 60%를 조달한다.

동대문 소상공인들이 면세점 운영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면세점 수익 100%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진정한 사회 환원을 추구한다는 게 특징이다. 국산품 판매 비중은 40% 이상 유지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상품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동대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패션·잡화·액세서리 제품을 특화시켜 판매할 예정이다.

## 파라다이스

### 신용등급 A+·30년간 면세점 운영 장점



이현병 부회장

◇파라다이스, 탄탄한 재무구조·30년 운영 노하우 = 2000억 원대의 현금을 보유 중으로, 당장의 면세점 신규투자는 물론 이후 추가 투자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신용등급 역시 A+로 자본시장에서의 추가 조달 역시 큰 문제가 없다. 자기자본비율도 75%로 중소·중견기업군 신장업체 중 가장 높다.

특히 40년 이상의 관광레저업 운영 경험을 통해 구매력 높은 개별여행객과 VIP 서비스에 대한 목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2012년까지 30년 동안 실제 면세점을 운영한 경험은 주요 강점이다. 중소·중견기업 매출 비율을 전체 면적의 38% 수준으로 배정하고, 이들 제품의 명품화·세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룹의 카지노·호텔 사업장과 영종도의 파라다이스시티에 홍보 공간을 마련, 관광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향한 단 1장의 티켓을 두고 국내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14곳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각 기업은 저마다 투자 여력과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내세우며 시내면세점 입찰전에 뛰어든 상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따낸다고 해도 이후엔 대기업들과 정면 승부를 펼쳐야 한다. 중소기업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품목 등을 분담해 공동 추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합작법인 형태로 뛰어드는 곳, 모기업의 탄탄한 지원을 받는 곳 등 다각도로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김정유·강인호 기자 thec98@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유치전 참여사**

중소·중견기업군 - 11곳 선정 0 신장업체 (임지)

1 유진디에프앤씨 (여의도 MBC건물)	8 종원면세점 (동대문 피트인)
2 세종면세점 (세종호텔)	9 동대문듀티프리 (을지로 패션TV(동대문 피트인))
3 청하고려인삼 (부암동 청하빌딩)	10 에스엠면세점 (인사동 하나투어 본사)
4 신흥선건설 (중구 마장로)	11 하이브랜드듀티프리 (양재 하이브랜드 쇼핑몰)
5 파라다이스 (명동 SK건설 빌딩)	12 SIMPAC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그랜드동대문디에프 (동대문 헬로APM)	13 듀티프리아시아 (종로 트윈타워타워)
7 서울면세점 (동대문 맥스타일)	14 동대문24면세점 (중구 장충대로)

## 하이브랜드듀티프리

### 강남 관광벨트 구축... 대형 주차장 마련



김창범 부사장

◇하이브랜드듀티프리, 강남 랜드마크 육성... 지자체 관광 프로그램도 = 부동산 컨설팅업체 인평이 이끄는 하이브랜드듀티프리는 시내면세점을 통해 서울 강남 3구와 성남·과천·용인시를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자가 건물로 임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형버스 52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장을 마련한 것도 차별점이다. 하이브랜드듀티프리 관계자는 "강남에 위치한 면세점을 통해 수서KTX 개통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으로 구축될 관광벨트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

## 듀티프리아시아

### 외인 자주 찾는 인사·삼청동 관광객 유치



신성재 부회장

◇듀티프리아시아, 중화권 인기 연예기획사 통한 면세점 한류 노려 = 듀티프리아시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전 사무원 신성재 삼우 부회장과 삼우 엔터테인먼트사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이 모친 면세사업 법인이다.

면세점 장소는 종로구에 위치한 옛 한국일보 사옥으로,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자주 오는 삼청동, 인사동과 인접해 있다. 중화권 인기가 높은 씨그널엔터테인먼트를 통한 관광객 유치도 강점으로 꼽힌다.

## SIMPAC

### 우수 중소기업 발굴 '브랜드 파워' 육성

◇SIMPAC, 중견기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오픈플랫폼 활용 강점 = 대표사가 SIMPAC으로 선정돼 있지만 사실상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7개사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다. 아직 면세점사업을 운영할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사가 SIMPAC을 내세웠다. 면세점 장소는 여의도다. 중견기업 컨소시엄은 중견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상품을 발굴하고, 자체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브랜드 파워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 동대문24면세점

### 화장품·여행 결합... 동대문에 최대 규모

◇동대문24면세점, 화장품사업과 여행업 결합 = 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과 여행사 레드캡투어는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담법인 동대문24면세점을 설립했다. 동대문24면세점의 가장 큰 강점은 동대문 관광특구에 위치한 규모당 최대 쇼핑몰 5층부터 8층까지 총 1만4049㎡에 달하는 매장이다. 이는 동대문을 면세점 후보지로 내세운 컨소시엄 중 최대 규모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여기에 국내 브랜드를 50% 이상 입점 유치하고 화장품과 여행,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쇼핑공간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 그랜드동대문디에프

### 시내면세점 운영 중... 새벽 4시까지 영업



조성민 사장

◇그랜드동대문디에프, 시내면세점 성공적으로 운영 중 = 그랜드동대문디에프의 최대 강점은 현재 시내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검증된 기업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그랜드 대구 시내면세점은 6개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들의 총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그랜드동대문디에프는 서울 시내면세점에 1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상권 부흥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대문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상생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심야시간대 개인 단위 방문객이 많은 동대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오전 4시까지 심야면세점을 운영하고, 고가의 수입 브랜드보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매스티지 브랜드를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한다는 방안이다.

## 서울면세점

### 키이스트 등 8곳 참여... 패션·한류 특화



서갑주 대표

◇서울면세점, 패션·한류 2가지 축 활용 = 서울면세점은 스글로벌 의류제조회사 노브랜드 △청주·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권자인 시티플러스 △배우 배용준·김수현의 소속사이자 대표적인 한류연예기획사 키이스트 △대표적인 중화권 쇼핑몰 전문기업 판다코리아닷컴 △중국 6개 스마트TV의 한류전문채널 운영사인 아폴로피앤씨 등 면세점·유통·한류마케팅·중국홍보 마케팅을 두루 갖춘 8곳이 주주로 참여했다. 서울면세점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의 협약을 통해 디자이너 상품과 뷰티시그널이 기획하는 면세점 전용 상품으로 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KBS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김수현이 출연해 화제가 됐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옆의 매장도 LED 조명장치를 드라마 촬영장소로 명소화해 관광객을 서울면세점으로 연계시킨다는 방안이다.

## 종원면세점

### 롯데와 협력... 사업지속성 측면서 유리



송관호 대표

◇종원산업, 롯데와 '맞춤' 사업 지속성 강점 = 청주에서 호텔과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종원산업은 대기업인 롯데와 손을 맞잡았다. 지분참여가 아닌, 롯데의 조력 방식으로 이뤄진 협력 이어서 눈길을 끈다.

종원산업이 내세우고 있는 강점은 롯데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지속성이다. 명품은 롯데가, 술·담배·국산화장품·잡화 등은 종원사업이 맡는 등 품목도 구분했다. 중소기업들만으로 이뤄진 다른 컨소시엄과는 사업 지속성 측면에서는 가장 강점을 보인다. 평가도 나온다. 종원산업 관계자는 "물류비, 정보 공유, 교육 등에서 대기업 롯데와 협력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지속성도 비교적 높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 동대문듀티프리

### 중소 패션업체로 구성 "24시간 운영할 것"



송승현 대표

◇동대문듀티프리, 탁월한 입지·재무역량 눈길 = 한국패션협회 소속 중소 패션업체들로 구성된 동대문듀티프리는 강점으로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꼽고 있다. 자기자본비율 78.4%, 유동비율 334.6%, 부채비율 27.6% 등 각종 재무지표상 1.2위에 꼽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대문은 외국인 방문객수 측면에서도 면세점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데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24시간 오픈할 수 있는 면세점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운영 능력 면에서도 패션, 유통, 소매 분야에서 수십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 에스엠면세점

### 하나투어·토니모리 11곳 합작... 여행 연계



권희석 대표

◇에스엠면세점, 모기업 하나투어와 시너지 두각 = 에스엠면세점은 국내 여행업계 1위 업체인 하나투어와 토니모리·로만손 등 11개업체와 합작한 곳이다.

이미 인천공항 3기 면세점 사업권자로 선정돼 무차입으로 27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하는 등 사업기반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인사동에 자가 건물도 있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절감해 추가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 하나투어와 연계해 여행업과 면세사업의 시너지 기대 효과도 큰 편이다. 여기에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그룹인 IHQ, 큐브엔터테인먼트의 협력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한류스타들의 상품 판매 등 문화관광 면세점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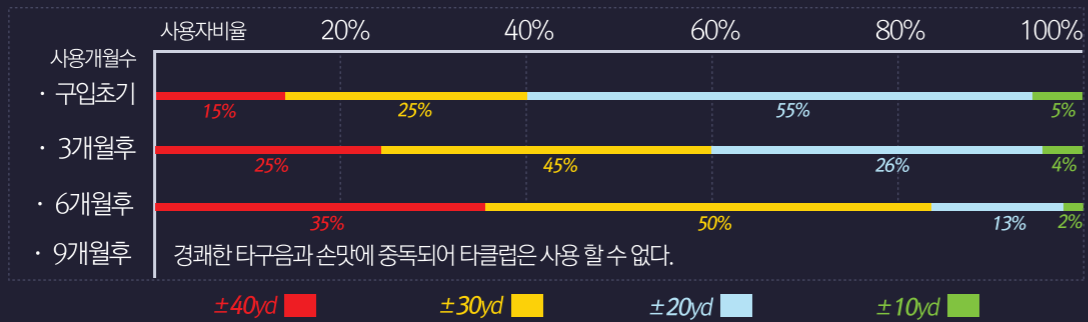
**BIG BANG**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장타설계 기술력 - **뱅**

평균 **+20yd** → 익숙해지면

# **+40yd** 더 나간다

익숙해질수록 사용자들의 거리증가 상승률



롱 홀이 아무리 길다 해도

티샷(드라이버 +30yd) + 세컨샷(페어웨이우드 +40yd) + 써드샷(아이언 +40yd) = +110yd 비거리증가

**HOW**

세계최고의 고반발 설계기술  
0.902 > 0.925 > 0.930 > 0.962

最高價, 最高級 품질,  
最高級 성능의 샤프트 소재와  
헤드 소재만을 사용

어떤 유형의 골퍼 에게도  
잘 맞도록 피팅할 수 있게  
다양하게 갖춰진 여러가지  
스펙의 샤프트와 헤드,그립

잘 갖춰진 최첨단  
스윙 분석 시스템

국내최고 베테랑  
스윙분석가

체형분석,  
종전사용클럽분석,  
스윙분석,  
그리고 사용후 교정  
+ 차별화된 A/S

## 30yd 더 나가는 **DRIVER**

- Low Torque 와스파인 정확도 99.9%로 방향성이 좋은 드라이버
- 사용자에게 따라 무게감을 무겁게 또는 아주 가볍게 피팅 할 수 있는 드라이버

· 반발계수 0.930이하 극초고반발 드라이버

- 반발계수 0.962이하 극초고반발
-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발계수를 가진 드라이버

## 40yd 더 나가는 **WOOD**

- 반발계수 0.902이하 초고반발
- 세계최초이며 세계 유일의 고반발 우드
- 타사 드라이버보다 더 나가는 우드 3번
- 타사 3번우드 보다 더 나가고 치기 쉬운 5번우드
- 투온이 쉽다!

#3(15.1°), #4(18°), #5(21°)

## 40yd 더 나가는 **하이브리드 IRON** (Hybrid WOOD)

아이언이 어려워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치기 쉬운 초고반발 하이브리드 아이언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여러 모양의 아이언이 유행하고 사라지고를 거듭 하며 진화되었습니다. 지금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언도 이제 구식 아이언이 됩니다. 만약 지금 하이브리드 우드를 쓰고 있다면 새로 유행할 진화된 아이언을 사용 하시기 시작 한 것입니다. 이미 모든 클럽 회사의 롱 아이언이 하이브리드 아이언으로 바뀌었습니다.

롱아이언 뿐만 아니고 미들 아이언 숏아이언까지 아이언의 성능이 대폭 진화된 하이브리드 아이언에 초고반발 기술을 더한

**BANG Longdistance Hybrid IRON #2~#11 / 10개 1Set**  
날개구매가능

일반적인 아이언보다

-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체적이 커서 스위트스팟이 넓고 빗맞아도 뒤틀리지 않는다.
- 출발 백스핀 1.12배, 착지 백스핀 3.5배 증가. (백스핀이 너무 많아 그루브를 없앴다)
- 뒷땅이 없다.
- 엘보우가 없다.
- 스윙이 쉽고 편하다.
- 세계에서 제일 가볍다. (초경량, 스윙밸런스 B3까지도 가능)
- 벙커샷을 페어웨이에서 어프로치샷 하듯 쉽게 할 수 있는 아이언 11번.

- 전 KPGA 회장 문홍식 프로
- 골프방송 해설위원 박영민 교수
- 노장볼때 골프 프로그램 진행 양찬국 프로
- 비거리가 250~270yd 프로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아이언세트

## **FunJoy** wedge

벙커샷이 쉽다,  
백스핀이 많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골프업계 4년연속 매출신장을 1위

# **BIG BANG Longdistance**

골프 해설가 75%, KL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주의 -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 장자는 그룹 경영·동생들엔 알짜 계열사... '황금분할' 승계 완성

## 대기업 경영승계 대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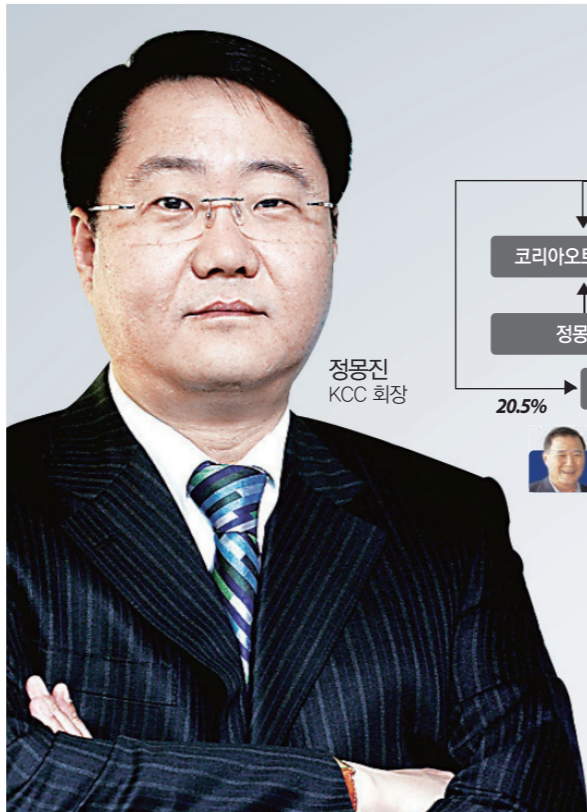
### ⑭ KCC그룹

KCC그룹의 승계구도를 보면 정상영 명예회장의 의중이 그대로 드러난다. 형제간의 갈등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그룹 전체의 경영권은 장남에게 물려주고 일부 알짜 계열사의 경영권은 차남과 삼남이 행사할 수 있도록 지분을 승계한 것이다. 또 그룹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KCC의 지분을 보유해 형제간 의사결정 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형제간 계열분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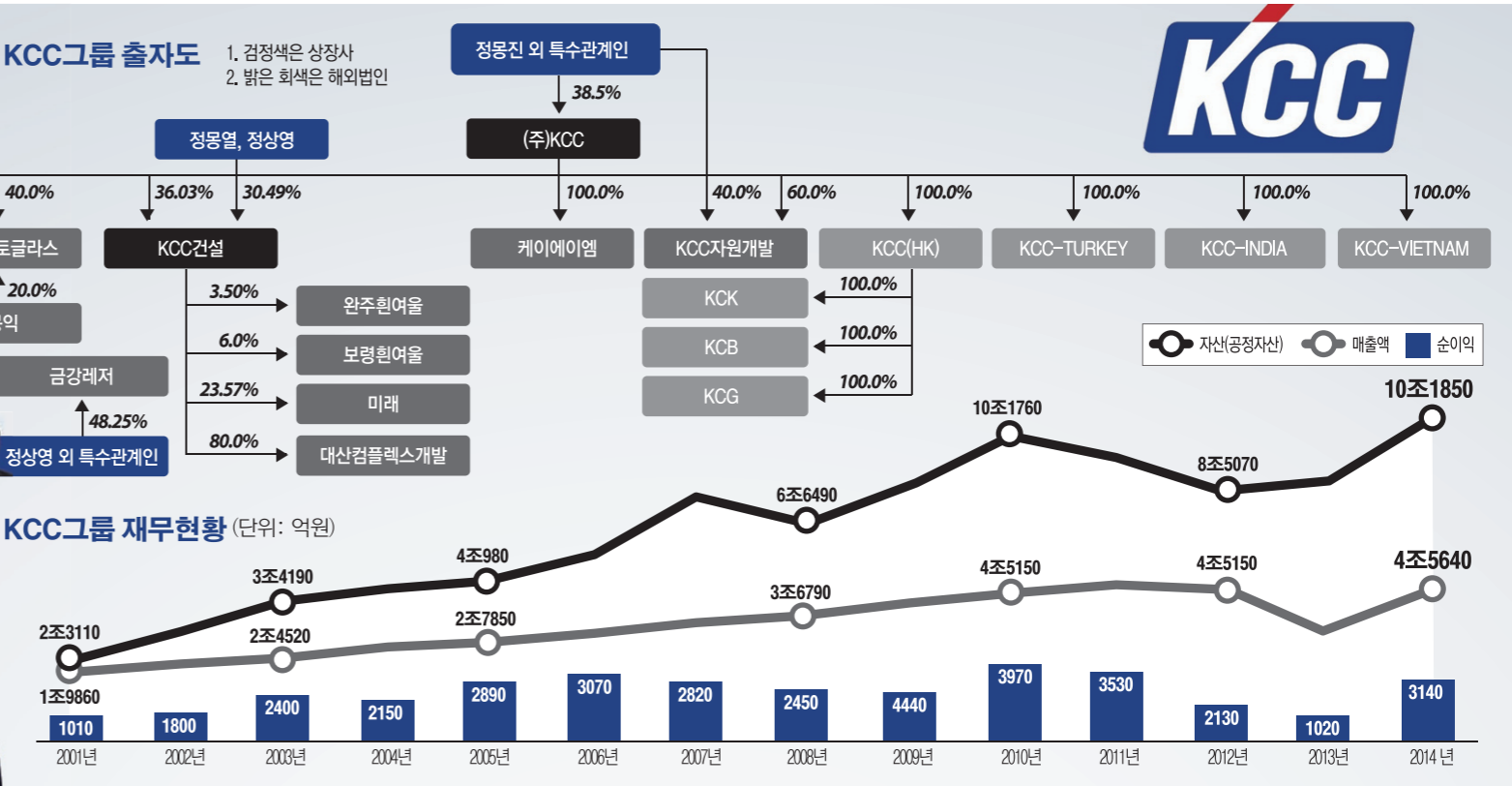
◇황금분할형 승계구도 = 정상영 명예회장은 지난 2000년 이후 본격적인 승계구도 작업을 벌여왔다. 장남인 정몽진 회장에게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상 최상위인 KCC의 지분과 경영권을 빠른 속도로 물려줬다. 정몽진 회장은 지난 1991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옛 고려화학 이사로 경영일선에 참여했다. 7년 만에 그룹 부회장에 올랐고 2000년에는 KCC 대표이사 회장직을 물려받았다. 다른 그룹과 달리 계열사 사장 등 임원자리를 역임하지 않고 40세에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특이한 점은 정상영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한 후 지분 승계를 한 것이다. 정몽진 회장의 KCC 보유 지분 추이를 보면 2000년 회장직에 오르기 전까지 6.4%에 불과했다. 이후 급격히 지분율을 높이면서 2004년 KCC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섰다. 현재 17.76%에 이른다.

차남인 정몽익 대표는 형인 정몽진 회장 지분의 절반가량인 8.81%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정몽진 회장과 정몽익 대표의 상생을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상영 회장의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중 주력계열사 중 하나인 KCC건설은 삼남인 정몽열 대표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



정몽진 KCC 회장



### 정상영 명예회장 "형평성 맞게"

장남 몽진 2000년 그룹 회장직 승계  
차남 몽익 지분율 8.8%로 상생 경쟁  
삼남 몽열은 주력사 'KCC건설' 맡아

몽열 대표는 지난 2009년 정상영 명예회장으로부터 KCC건설 지분 10%를 수증했다. 현재 지분율은 24.81%를 보유 중이다. 그룹 지주사인 KCC가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회사 이사회에 다른 형제들이 참여하지 않는 등 정몽열 대표가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 아버지 남은 지분은 누구에게

정몽진 체제 후 5배 성장 입지 공고히  
아버지 5% 지분 차남에게 물려줄 수도  
'건설' 내부거래 많아 계열분리 힘들듯

행사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승계의 방향 = KCC그룹의 남아 있는 승계구도는 정상영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와 삼남이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KCC건설의 계열분리 가능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몽진

회장이 취임한 이후 그룹 전체 자산(공정자산 기준)이 5배가 증가했다. 그룹 전체 매출도 2.5배가량 늘었다.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KCC그룹의 경영권은 정몽진 회장 중심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아 있는 정상영 명예회장의 KCC 지분 5%의 향배는 불투명하다. 장남이 아닌 차남에게 물려줄 가능성도 높다. 정몽열 명예회장이 2000년 이후 삼형제에 대한 부의 승계 구도를 보면 형제간 형평성을 많이 고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삼남인 정몽열 대표가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도 관심거리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KCC의 경영권을 장남에게 물려주면서 이미 정몽열 대표에게 KCC건설의 지분과 최고경영자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정몽열 대표가 독자적으로 계열분리를 하기는 힘들다.

우선 KCC건설의 최대주주가 KCC다. 정몽열 회장이 보유한 KCC 지분을 활용해 KCC건설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문제도 있다. 계열사가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회사 전체 매출의 20%가량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몽열 대표의 그룹의 그늘 밑에서 건설부문에 대한 독자적인 성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몽진 회장이 한 이후 오랫동안 형제간 잡음이 없었고 안정적인 성장 구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정상영 명예회장이 형제간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승계작업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 삼형제 현금수익만 年 350억원

KCC그룹 정몽진 회장 등 오너가 삼형제가 배당과 임원 보수, 조광료 등으로 연간 350억원가량의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

우선 장남인 정몽진 회장은 매년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180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항목별로 보면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은 KCC지분에 대한 현금배당이다. KCC는 지난해 결산 배당으로 881억원의 현금을 지출했다. 정몽진 회장의 지분율이 17.76%인 점을 감안하면 156억원가

량이 정 회장 계좌로 입금된 셈이다. 정몽진 회장에게는 쓸쓸한 비밀 수입도 있다. KCC자원개발이 매년 지출하고 있는 조광료다. 회사는 지난 2012년까지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년 평균 24억원가량의 조광료를 정 회장에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3년 감사보고서에는 정몽진 회장의 이름 대신 '가평광산'이라는 회사에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 감사보고서에는 가평광산을 특수관계인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공정위에 계열사로 신고가 돼

정몽진, 작년 현금배당 156억 'KCC자원개발' 조광료 24억 등 180억  
정몽익, 코리아오토글라스 배당 등 120억 넘겨...정몽열도 60억 상당

있지 않고 회사 법인 검색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조광료 부분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광산 소유주가 아닌 지명을 써 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의 감사보고서대로 가평광산이 특수관계회사라면 신고가 돼 있지 않아 위장계열사(미면입 계열사)가 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차남인 정몽익 대표의 KCC로부터 임원 보수로 매년 7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결산 배

당으로 77억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쓸쓸한 현금 주머니도 있다. 고액배당으로 유명한 코리아오토글라스다. 이 회사는 매년 200억원을 현금으로 주주에게 주고 있다. 정 대표는 코리아오토글라스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주주총회가 있는 매년 3월이면 40억원의 현금이 자신의 통장에 찍히는 셈이다.

특히 코리아오토글라스는 기아차 등 현대가 그룹의 주력계열사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는 회사다. 게다가 매년 순이익

의 대부분을 현금배당을 하는 합작회사이다.

삼남인 정몽열 KCC건설 대표에게는 회사로부터 받은 임원 보수와 현금배당, 조광료가 주요 현금 수입처다. 정몽열 대표는 KCC 지분 5.29%에 대한 현금배당액인 46억원을 올해 3월에 받았다. 또 KCC건설로부터는 매년 6억원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다. 특히 형인 정몽진 회장과 함께 계열사 KCC자원개발로부터 조광료를 매년 5억원 내외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몽열 대표에 대한 조광료 명목도 지난해부터 영월광산이라는 항목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상영 명예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회사측에 대부분 처분한 상태이며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KCC 지분 5%에 대한 현금 배당이 현재의 최대 수입처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 COVER STORY

## 혼자 산다는 것

이젠 어디가도 싱글족들이 넘쳐난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비혼, 미혼, 이혼, 사별, 주말부부, 기러기야행 등 다양한 형태의 싱글들이 빠르게 확산 중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싱글들의 증가세로 지난해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2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 1인 가구의 비중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누구라도 언젠가는 혼자 사는 삶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혼자 잘 살아나갈 것인가를 궁리해야 한다. 혼자만의 삶을 즐길 준비가 됐다면, '완벽한 싱글'에 취해보자.

- 함께라면 혼자서도 오래 산다
- 혼자 사는 의미
- 혼, 혼자 사는 데 대한 잘못된 인식 9가지
- 그 정도라면, 혼자 살아도 좋아
- 혼자 사는 사람과 1인 가구의 생활과 문화
- 혼자 노는 남자 이시형 박사의 둔하게 살기
- '일, 홀로 살기'의 행복 가득 인생 플랜

### Special Issue

#### 7월에 혼자 떠나는 여행

마음속 동영어를 내려놓을 휴식이 필요하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심표를 찍고 싶을 때 속삭이는 도심을 혼자 떠나보자.

- 큰집 '송소' 작은집 '송정' 고택 탐방기
- 당진시의 유일한 섬 신지도
- 웰에이징 힐리언스 신마을
- 국내 4대 사찰 탐방

### 브만사

#### 열정과 사랑

• 다 해봤다 한국출판기념회 전현희 총재

#### 보람과 여유

• 섹스가 시니어 삶의 질을 높인다 건강과 성 박물관 김연희 회장

### 해외투어

#### 터키, 달안에 취해 길을 잃다

이신화 여행작가

우리나라보다 8배나 넓은 터키 땅, 흑해, 에게해, 마르마라해,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는 곳. 고대도시, 그리스, 로마는 물론 13세기 말 오스만투르크의 유적지로 가득 찬 나라.

### HORROR

#### 호환마마보다 무서웠던 그 시절 공포 영화

한 차원 더 무서웠던 공포물을 즐길 수 있는 요즘이지만, 가끔은 고전 공포영화의 참찬한 화면 속 움직임이 더 무서운 때가 있다. 추억의 공포영화들을 다시 만나 보자.

### HOBBY

#### 3D프린터로 즐겁게 놀기

골프, 여행, 등산, 스포츠를 하며 놀아도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 예전엔 취미 생활도 이제는 점점 의무감으로 이어갈 때도 있다. 무료함을 느끼려면 3D프린터나 드론 같은 새로운 것에 눈을 돌려보자 여러 매체를 통해 봤을 때 어렵게 느껴졌던 3D프린터. 한데 먼저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즐겁게 놀자. 3D프린터로 새로운 놀이를 즐겨보자.

### 우리 세대 이야기

#### 70년을 빛낸 스포츠 스타들

신명철 스포츠 평론가

대한체육이 제국주의 일본에 병탄된 이후 한국인들의 스포츠 활동은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1920년 조선체육회를 창립하는 등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했다.

### 추천 맛집

#### 터키 맛의 진수 '케르반'

중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음식으로 꼽히는 터키 요리. 그 명성에 비해 터키의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터키' 하면 케밥만 떠올리는 이들에게 터키의 맛을 제대로 각인시켜줄 맛집 케르반을 소개한다.

### 착한 환자 좋은 의사되기

#### 살려준 손, 따뜻한 눈물

의사와 환자, 생명을 걸고 맡기는 관계, 둘 사이에 맺어지는 깊은 신뢰감을 '라포르(rapport)'라고 말한다. 당신의 의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대장암 3기, 수술로 극복하고 현재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류세창씨와 그를 살린 기적대 길병원 대장항문클리닉 백정훈 교수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추억 한 스펀, 눈물 몇 방울 떨어뜨려 할 깊은 녹차처럼 우려냈다.

### 제2인생의 동반자 <월간 브라보 마이라이프>



정기구독 신청 (02)799-2684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 이메일 bravo@today.co.kr

# “컴퓨터를 매개로 세상과 소통”...인터넷 강국 연 선구자

## IT 부호 열전 ㉞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

2001년 6월 방송·연예계와 IT벤처기업계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IT벤처 사업가 출신의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와 KBS 9시 뉴스 앵커를 지낸 황현정 KBS 아나운서의 결혼이었다. 당시 그가 주목받은 이유는 KBS 간판 아나운서와 결혼 때문은 아니었다. 이 창업자 역시 IT벤처업계에서 실력있는 경영인으로 주목받고 있던 시점이었다. 2008년 다음을 떠나고 2014년 10월 카카오와 합병으로 이 창업자의 존재감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가 벤처 1세대로 대한민국 인터넷산업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고등학교때 처음 접한 ‘청계천표’ 클론이 다음 창업 원동력  
프랑스 유학중 만난 故 박건희 사진작가·이택경과 의기투합  
1995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

한메일·다음 카페 성공...코스닥 25일 연속 상한가 진기록  
외형 확장 불구 경영부진...2008년이후 대주주 신분만 유지  
2009년 ‘sopoong’ 설립...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전개

이 창업자는 고 이철형 전 한국종합건설 대표의 1남 2녀 중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려서부터 컴퓨터 형식으로 된 공학계산기를 써보면서 성장했다. 공학을 전공한 아버지 덕분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애플(Apple)을 모방한 ‘청계천표’ 클론(애플 복제품)을 갖게 되면서 인생의 방향과 좌표를 그리게 된다. 1980년대 국내에 처음 보급된 ‘애플컴퓨터’를 흉내 낸 애플복제품은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구매가 가능했다. 이 창업자가 당시 처음 접한 컴퓨터는 훗날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의 원동력 역할을 하게 된다.

넥스트컴퓨터박물관의 ‘내 인생의 컴퓨터’에 밝힌 이 창업자는 컴퓨터를 바깥 세상과 같이 얘기하는 커뮤니케이터로 평가했다. 이 창업자는 “사람들이 전화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통해 바깥 세상과 같이 얘기 할 수 있는 도구가 컴퓨터였다”며 “처음에는 게임을 많이 했고,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재미를 느끼게 돼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이 창업자는 연세대에서 전산학과와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당시에는 연세대 공대에 컴퓨터공학과가 없었다. 대신 전산학과라고 불리었다.

이 창업자는 1993년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다. 프랑스 파리 제6대학에서 인지과학(인간 두뇌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한 길이었다. 이곳에서 이 창업자는 지금은 고인이 된 박건희 사진작가와 만난다. 당시 영동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유학생 신분이었다. 이 창업자와 박 작가는 자주 만나면서 막역한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귀국한 뒤 이 창업자의 연세대 4년 후배인 이택경씨 등과 의기투합해 1995년 서울 청담동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설립했다. 자본금 5000만원에 20명 남짓한 사무실, 책상 3개가 다음의 시작이었다.

다음 초기의 자금사정은 넉넉하지 않았다. 다음의 사업 자체가 부진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광고 수익 모델이 당장 현금화가 어려워지면서 서버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

려웠다. 이 때문에 SI용역개발을 부업으로 삼으며 회사를 지탱했다.

이 창업자는 1997년 국내 최초의 무료 웹메일인 ‘한메일(hanmail)’ 서비스를 내놓는다. 한메일은 서비스 오픈 3년만에 국내 단일 사이트로는 처음으로 1억 페이지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메일은 뒤에 ‘다음메일’로 바뀌 통합관리된다. 2년 뒤인 1999년에는 온라인 카페 서비스인 ‘다음카페’가 공개되며, 다음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다. 한메일과 다음카페의 성공을 등에 업은 다음은 1999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에 처음 거래된 다음은 공모 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25일 연속 상한가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 창업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다. 2000년 3월 온라인 쇼핑몰인 ‘다음쇼핑(현 디앤샵)’을 출시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하는 ‘다음 금융플라자’를 오픈한다. 이 중 다음쇼핑은 2007년 GS홈쇼핑에 매각됐다.

2002년에는 미디어 테스크포스(TF)팀을 미디어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미디어 다음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어 온라인 자동차보험인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설립하며 외형 확대에 나선다. 2004년에는 미국 인터넷 포털 라이코스를 인수·합병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에도 눈을 돌린다. 하지만 이 창업자는 값비싼 학습비용을 치르게 된다. 라이코스의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다음은 2010년 미국 IT 서비스업체인 와이브랜트에 라이코스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린다.

2008년 7월 이 창업자는 10년 넘게 지키던 회사를 떠났다. 당시 이 창업자는 평의원 신분도 버리고 다음 지분 18.34%를 가진 대주주 신분만 유지했다. 이듬해인 2009년에 이 창업자는 에스오피오엔지(sopoong) 설립하며 소셜벤처(사회적 벤처) 인큐베이팅 사업을 전개 중이다. 양창국 기자 yangck@



**다음 이재웅 다음 창업자**

- 1968년 10월 22일 서울생
- 1986년 영동고등학교 졸업
- 1991년 연세대 전산학과 졸업
- 1993년 연세대 전산과학대학원 졸업(석사)
- 1993년 프랑스 파리 6대학 연구원(인지과학 박사과정)
- 1995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취임
- 2000년 아시아위크 선정 디지털 엘리트 25인
- 2008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사임
- 2009년 에스오피오엔지(sopoong) 대표

### 얼마나 벌었나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다음·카카오 합병으로  
1000억 이상 주식자산 불려

이재웅 다음창업자가 카카오와의 합병으로 1000억원 이상의 주식자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창업자의 다음카카오 보유주식수는 합병일인 지난해 10월 1일 기준 185만4000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2일 증가인 13만83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2564억원이다. 다만 합병 이후부터 공시 의무가 사라져 주식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창업자는 2007년 경영악화를 책임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에는 아예 퇴사를 하고 대주주에만 이름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이 창업자는 지난해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모두 198만주 가운데 12만6000주를 장내매도해 103억원을 현금화했다. 23일 당시 다음 주가는 8만5000원이다. 남은 주식인 13만4000주를 이에 환산하면 그의 주식자산 평가액은 당시 1492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 카카오와의 합병 이슈가 나오며 다음의 주가는 치솟기 시작했다. 카카오와의 합병 직전일인 9월 30일 다음의 주가는 15만7700원에 마감했다. 합병날인 10월 1일에는 16만6500원을 기록하며 이 창업자의 주식자산은 3086억원까지 뛰었다. 무려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하지만 합병 직후부터 다음카카오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2일 증가인 13만8300원 기준으로 이 창업자의 보유 재산은 2564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1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불린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음카카오가 삼겹살 등 모바일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다음카카오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이 창업자의 자산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성제 기자 psi@

### 주변인물 누가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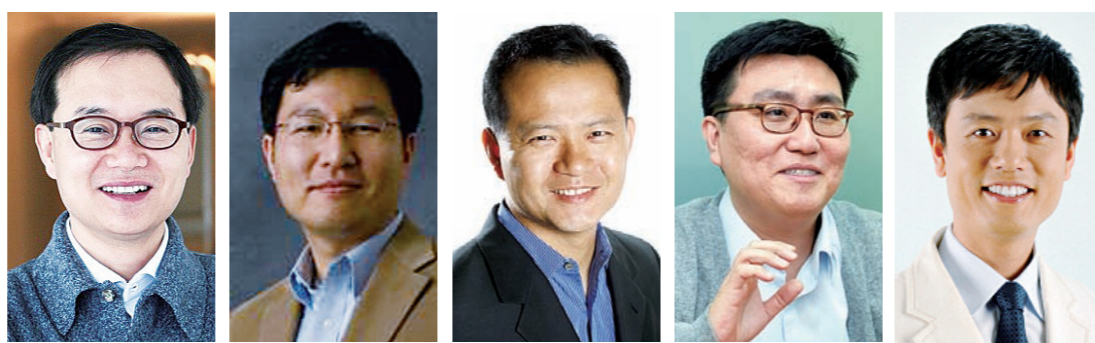
## 벤처 1세대부터 후배 벤처·스타트업 양성 후원군까지 다양한 인맥 형성

안철수의원과 정기적 만남 가지며 친분 쌓아  
다음 공동 창업자 이택경 대표와 20년 지기  
권도균·송영길·장병규·이기하 등도 도움줘

이재웅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는 세간에 익히 알려져 있는 대로 벤처 1세대 중 한 명이다. 1986년 서울 영동고를 졸업한 그는 같은 해 연세대 전산학과에 입학했다.

한국 벤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86학번 멤버의 일원으로 그와 비슷한 또래의 인물로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김정주 NXC 김정주 회장,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 등이 있다. 연세대 출신인 이 창업자와는 달리 이들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김범수 의장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각각의 회사를 설립, 동고동락하며 벤처산업을 성장시켜 IT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창업자는 재계에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인연이



권도균 이니시스 창업자 | 송영길 부가벤처스 대표 | 이기하 사제 창업자 |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파트너 | 장병규 본엔젤스 대표

깊다. 과거 안 의원이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하며 벤처기업가로 활동하던 때부터 정기적으로 만나며 친분을 쌓아왔다. 과거 이 창업자가 후배 벤처기업가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던 중 안 의원이 깜짝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벤처업계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일화다.

벤처 1세대로 활동하던 그는 현재 후배 벤처기업을 양성하고 소셜벤처 투자를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 ‘Sopoong’의 대표로 활동하

고 있다. 벤처업계에 그의 든든한 아군은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 파트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이택경 대표와 함께 2008년 6월 같이 회사를 퇴사한 뒤 2010년 프라이머 출범을 함께했다. 이택경 대표와는 1995년부터 20여년간 끈끈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프라이머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다. 당시 함께 한 인물로는 권도균 이니시스 창업자, 송영길 부가벤처스 대표, 장병규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대표, 이기하 사제(실리콘밸리 전자상거래 기업) 창업자 등이 있다. 이들은 현재 벤처 투자와 인큐베이팅·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후배 벤처기업·스타트업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메르스 소강에 제약株 기지가... '일양' '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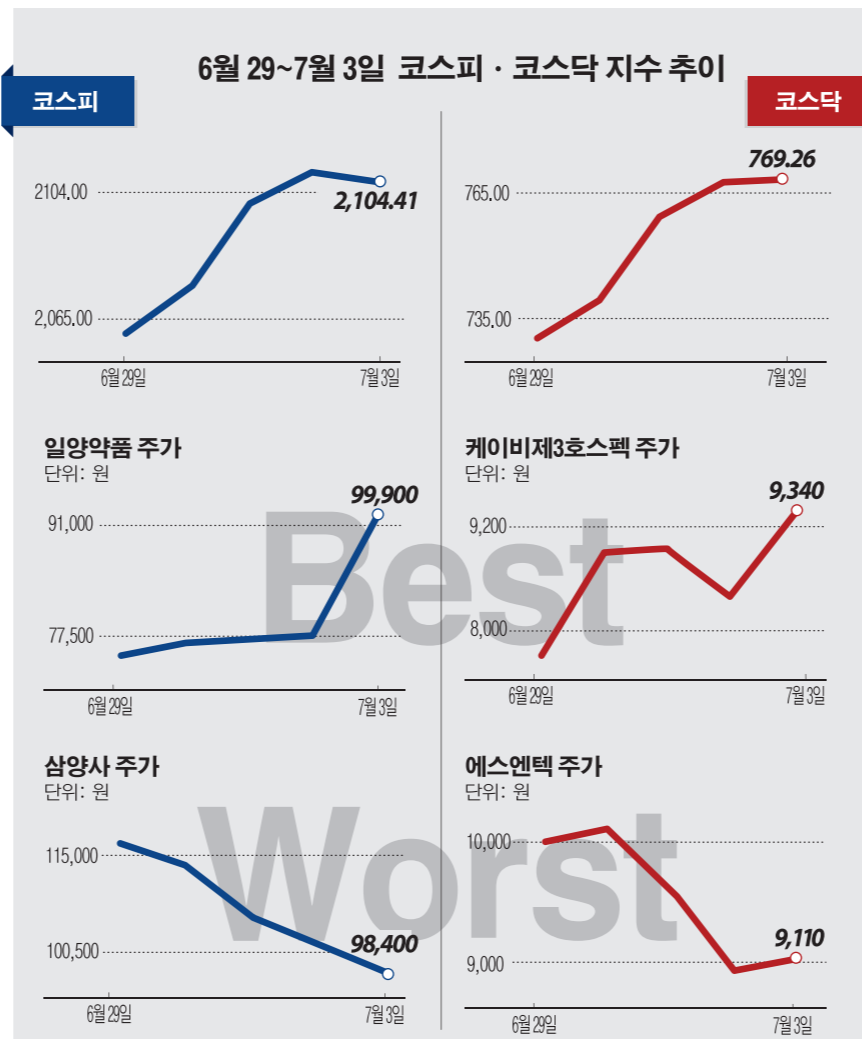
**베스트&워스트**  
**6월 29~7월 3일**

6월 마지막주(6월 29일~7월 3일) 코스피 지수는 2100선을 횡보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 2090.26로 시작했으나 2104.41까지 오르는 데 그쳤다. 구제금융 관련 그리스 국민투표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했고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 소식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이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59억6234만원, 270억8977만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29일 750.50으로 시작한 코스닥 지수는 17.46포인트 하락하며 730선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지난 3일 769.26으로 마감했다. 지난주 기관은 2454억2023만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 역시 36억3907만여원을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1807억4078만원을 순매도 했다.

◇제약株, 상승밸리 재개 =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인 업종은 제약주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제약주들이 의약품 판매액 증가 소식 등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다시 상승밸리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5월 의약품 누적 판매액은 5조27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중목별로는 일양약품이 주주 6만9500원에 시작한 주가가 무려 43.74% 상승한 9만9900원까지 치솟으며 10만원대를 넘겼다. 일양약품은 최근 연구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일양약품의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글로벌 신약 개발 가능

을 담당하는 이 회사에 추가 사업 확장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덕성(30.37%), 태원물산(30.29%), 대호에이엘(28.22%)이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 들었다.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신원 급락 =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삼양사다. 삼양사는 주 초 12만2000원이었던 주가가 19.34% 떨어지며 10만원대 또한 붕괴되며 9만8400원까지 내려앉았다. 신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지난주 주가가 18.67% 하락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지분 거래 과정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포착된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의 자택과 그룹 분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회사)에 들어갈



상승밸리 '종근당바이오' '명문제약' 30% 이상 훌쩍  
'다우기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대감 25.92%↑  
'신원' 조세포탈 혐의 검찰 압수수색 18.67% 하락

성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으며 지난주 주가가 41.30% 급등했다. 하태기 SK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5일 "한미사이언스는 사업자회사 한미약품 지분을 41.73% 보유하고 의약품 온라인 도매업체인 온라인팜을 75% 보유하고 있다"며 "한미사이언스의 가치는 한미약품의 보유지분 가치와 온라인팜의 기업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미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가치평가와 그 세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약품그룹은 글로벌 신약 개발과 북경한미 등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종근당바이오와 명문제약 또한 각각 38.45%, 33.60%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기술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주 주가는 25.92% 상승했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다우기술은 계열사인 카움증권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가능성으로 인해 카움증권의 시스템 운영

당시 지분을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 등 수십억원의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조사를 받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C코트렐은 한국-중국 철강분야 대기 오염 실증사업 관련 참가기업으로 확정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주가가 떨어졌다. 지난주 주가 하락률은 17.72%를 기록했다. KC코트렐은 지난 1일 "지난 4월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관련 참가 후보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지난 6월까지 참여기업 확정 및 계약체결 관련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향후 한중 미세먼지 실증협력사업 관련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KGP(-18.26%), 신우(-16.29%), 신성에프에이(-12.35%), 현대글로벌(-12.17%) 등이 주가 하락률이 높은 종목이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3일 시가 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	
일양약품	1,856	69,500	99,900	43.74
한미사이언스	9,979	123,500	174,500	41.30
종근당바이오	210	29,000	40,150	38.45
명문제약	91	3,750	5,010	33.60
덕성	219	10,700	13,950	30.37
태원물산	37	3,780	4,925	30.29
대호에이엘	70	2,020	2,590	28.22
웅진에나지	132	1,405	1,780	26.69
세가지사	30	58,500	73,800	26.15
다우기술	1,232	21,800	27,450	25.92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3일 시가 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	
현대위아	2,646	109,500	97,300	-11.14
코리아비티	219	10,500	9,260	-11.81
현대글로벌	6,900	209,500	184,000	-12.17
신성에프에이	39	2,510	2,200	-12.35
신우	181	3,500	2,930	-16.29
에스엘	530	18,950	15,650	-17.41
KC코트렐	83	10,100	8,310	-17.72
KGP	67	2,190	1,790	-18.26
신원	116	2,250	1,830	-18.67
삼양사	604	122,000	98,400	-19.34

※자료 : 에프앤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3일 시가 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	
케이비제3호스팩	96	5,940	9,340	57.24
엘젠	39	3,355	4,950	47.54
바이오톡스텍	96	4,815	6,680	38.73
랩지노믹스	222	38,400	52,500	36.72
코오롱생명과학	1,871	205,700	279,700	35.97
대화제약	935	38,300	51,300	33.94
JW중외신약	443	8,520	11,350	33.22
씨엔플러스	27	4,250	5,650	32.94
이수업지스	249	9,700	12,800	31.96
라운시큐어	119	2,860	3,730	30.42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3일 시가 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	
화성	58	9,500	7,990	-15.89
유아아엘	126	13,250	11,100	-16.23
한양디지텍	75	8,930	7,450	-16.57
하츠	110	10,350	8,610	-16.81
오킨스전자	69	13,500	11,150	-17.41
마이크로컨텍솔	113	16,650	13,650	-18.02
코아크로스	64	1,695	1,375	-18.88
엑셀	144	6,400	5,190	-18.91
팬엔터테인먼트	82	11,100	8,900	-19.82
에스엔텍	53	13,000	9,110	-29.92

※자료 : 에프앤가이드

◇KB제3호스팩, 바이오기업과 합병 승인 소식에 급등 = 지난주 가장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KB제3호스팩이다. KB제3호스팩은 지난주 주가가 5940원에서 시작해 9340원까지 치솟으며 57.24% 상승했다. KB제3호스팩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코스닥 상장사 산성엘엔에스의 자회사인 줄기세포기술 연구개발 바이오기업 프로스테믹스와 합병이 지난 25일 승인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프로스테믹스는 지난 2005년 설립돼 지방유래 줄기세포 기반의 연구·개발을 10여년간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 지방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줄기세포 기술을 응용한 줄기세포배양액의 상업화에 성공했다. 산성엘엔에스가 지분 41.6%를 보유하고 있다. 프로스테믹스는 오는 10월 합병신청서 상장을 앞두고 있다.

제약주들도 선방했다. 코오롱생명과학, 대화제약, JW중외신약은 각각 35.96%, 33.94%, 33.22% 급등했다. 이외에도 씨엔플러스(32.94%), 라운시큐어(30.42%)가 한 주간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장비株, 낙폭 확대 =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반도체 및 관련 장비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에스엔텍(-29.92%), 마이크로컨텍솔(-18.02%), 오킨스전자(-17.41%), 한양디지텍(-16.57%)이 급락했다. 에스엔텍은 상장 첫 날인 지난달 26일 시초가보다 가격제한폭(30%)까지 뛰어오른 이후 차의 실현을 위한 매물이 쏟아지며 상장 이틀째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컨텍솔은 2분기 부진한 실적에 예상되며 하락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마이크로컨텍솔에 대해 "2분기 국내

'KB제3호스팩' 프로스테믹스와 합병 소식 57.24%↑  
'바이오톡스텍' '랩지노믹스' '이수업지스' 바이오株 급등  
'에스엔텍' '오킨스' '한양디지텍' 등 반도체株는 풀썩

엘젠은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지난 한 주간 주가가 47.54% 상승했다. 엘젠은 최대주주인 신용현 대표이사가 KMH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양수도 주식수는 29만7068주이며 양수도 대금은 45억28만원이다.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는 바이오·제약주의 상승세 역시 두드러졌다. 바이오 업종의 바이오톡스텍, 랩지노믹스, 이수업지스가 각각 38.73%, 36.72%, 31.96%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수업지스는 신제품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며 주 후반부 주가 상승세가 집중됐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수업지스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26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처방이 일부 지연됐음에도 신제품인 파바갈에서 약 5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켓업체들의 영업 상황이 연초 기대치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2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 부진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교보위드스팩과 합병을 완료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엑셀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엑셀은 지난달 26일 코스닥시장에 진입했으나 이후 약세를 지속하며 한 주 동안 18.91% 하락했다. 화성은 지난주 15.89%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지난달 29일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새로운 감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주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화성은 지난달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김경현씨 외 9인 등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인준 전 베스트투자자문 대표가 신입 상근감사에 선임됐다고 공시했다. 이외에도 팬엔터테인먼트(-19.82%), 코아크로스(-18.88%), 하츠(-16.81%), 유아아엘(-16.23%)이 주가 하락률이 높은 종목으로 꼽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소통의 현장'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맨의 자기계발 필독서

##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의 창조자들

# 메신저

MESS ENGER

당신은 그 사람의 메시지에 명중됐다!

**빌리 브란트, 마틴 루터 킹, 스티브 잡스... 시대와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순간에는 항상 그들의 '메시지'가 있었다!**

〈공피고야〉, 〈저신〉 이남훈 작가가 16년간의 저술 경험을 토대로 '메시지의 힘'을 통찰한 책이다. 그는 '메시지'의 중요함을 알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시대를 이끈다고 말하며, 메시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정의했다. 메신저는 상대방에게 맞는 적합한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으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대중의 지지를 얻고 시대와 역사의 흐름까지 좌우했던 사람들이다. 소통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당신의 말은 먹히는가? 당신의 글은 읽히는가?  
당신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가?**

문의: 02-6443-8838

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베스트셀러!

## 글로벌 금융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

빌 게이츠 추천도서!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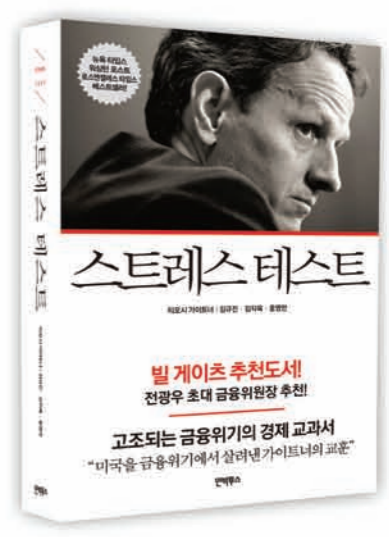
고조되는 금융위기의 경제 교과서  
"미국을 금융위기에서 살려낸 가이드너의 교훈"

각국 정부가 향후 닥칠지 모르는 금융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이자 내수 부진, 심각한 가계 부채로 인한 '한국의 금융위기' 대응 해법서!

문의: 02-3446-6206



이남훈 저 | 295쪽  
알에이치코리아 |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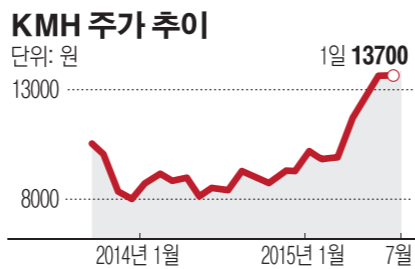
티모시 가이트너 | 김규진·김지옥·홍영만  
양장 | 664쪽 | 인빅투스 | 값 25,000원

출판사 참여문의 ☎ 070-8868-2375



# 엠젠플러스 품은 KMH, 바이오 사업 시동

### 지분 16% 취득 146만4951주 보유 “경영참여 위해” 프린터 현상기·홈쇼핑 상품 개발·바이오 사업 운영 엠젠, KMH 대상 116만주 유증 운영자금 마련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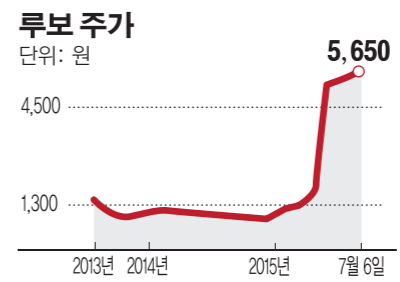
KMH가 레이저프린터 토너 제조업체인 엠젠을 인수하며 신규 사업 진출에 나선다. 6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엠젠은 최대주주인 신용현 대표가 29만 7068주(3.72%)를 KMH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대금액은 45억여원이다. 변경예정일자는 오는 9일이다. 엠젠은 또 KMH를 대상으로 116만7883주를 발행하는 제3차배정 방식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신주발행가격은 3425원, 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마련이다. 이를 통해 KMH는 엠젠 주식 146만4951주(16.02%)를 보유하게 된다. KMH 측은 이번 지분 취득에 대해 “경영참여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 및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엠젠은 현상기사업, 통신네트워크사업, 커머스사업, 스마트서비스사업, 이종장기 연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현상기 사업은 프린터 현상기를 제조, 판매

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다. 통신중계기 유지보수 및 스마트홈 네트워크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통신네트워크 사업은 삼성SDS를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다. 또한 KTH, CJ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롯데홈쇼핑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운영, 시스템 개발, 상품 개발 등 커머스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부문을 통해 이종장기 및 치료용 세포조직 연구 개발, 질병 연구용 목적성 돼지 연구 개발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KMH 측은 엠젠의 커머스사업 부문과 KMH의 방송 송출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엠젠의 바이오사업 부문을 통한 신사업 진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국내 바이오 산업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9조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의 수요증가와 정부의 생명공학 연구개발

투자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엠젠은 형질전환배지와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인간인슐린 분비제 및 면역결핍 실험용 복제돼지 생산을 위한 연구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엠젠은 올해 초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지아이부에서 엠젠플러스로 변경한 바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비 14% 감소한 750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4억원으로 전년비 흑자 전환했다. 문선영 기자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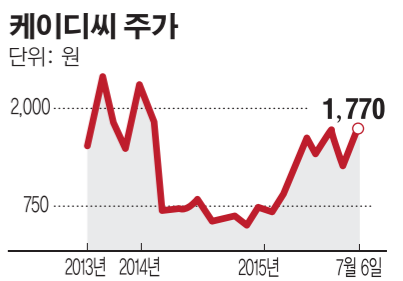
## 최규선 회장의 루보, 썬코어로 새출발

### 박세현 前 해군제독과 각자대표 사우디 왕자 비서실장 고문 합류 전기차·배터리 기술 확보 박차



최근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의 인수로 관심을 모았던 루보가 사명 변경과 함께 새로운 이사진과 고문단을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새출발에 나선다. 루보는 지난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상호에서 ‘썬코어(Suncore, Inc.)’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이사진 2명과 국내외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단 6명을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등재이사 겸 각자 대표이사로는 최규선 회장과 박세현 예비역 해군제독이 선임됐다. 박세현 제독은 GE(제너럴 일렉트릭) 항공기 엔진정비사업부 한국 대표이사를 다년간 역임했으며, GE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 사업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날 공개한 고문단 구성원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왈리드 왕자 회장으로 있는 킹덤홀딩컴퍼니의 비서실장인 모하마드 무자디디(Mohamed Mujadidi)가 포함됐다. 회사 측은 최 회장의 오랜 기간 동안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는 알 왈리드 왕자의 비서실장인 모하마드 무자디디가 고문단으로 합류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주의 밥 호크(Bob Hawke) 전 수상과 미국 실리컨밸리

의 전기차 관련 회사들의 고문을 역임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제프 블레이쉬(Jeff Bleich) 박사도 선임됐다. 국내 인사로는 이종구 전 국방장관 명과 김중빈 전 검찰총장, 그리고 국내 전기차 기술개발의 선도자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합류했다. 조동호 교수카이스트의 무선전력 전송 연구센터 센터장과 조선기술개발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기차 무선 충전시스템을 개발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현재도 전기차 관련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썬코어 관계자는 “루보를 인수하면서 다방면의 신규사업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사업을 구성해온 최규선 회장이 직접 일선에서 고문단 영입을 주도했다”며 “전기차와 배터리 리의 핵심기술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가능성이 돋보이는 고문단 구성원은 향후 썬코어가 나아가는 사업방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정사진’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 케이디씨, 중국 강소성에 3D프린팅 건축이달 착공

케이디씨가 중국 강소성에 1만 8000㎡ 규모의 3D프린팅 건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이 달 중에 착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케이디씨 관계자는 “중국 강소성 강소대중경제개발구에서 18000㎡ 규모의 3D프린팅 건축 프로젝트에 진출한다”며 “이 달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3D영사기 전문업체 케이디씨는 세계 최초로 3D프린팅 건축기업 원선과 올해 초 손을 잡았다. 원선(WINSUN)과 3D건축 관련 공동 연구개발 및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3D 건축 사업으로 중국 강소성에 1만 8000㎡ 중 일부 건축물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3D 프린팅 건축은 건축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건축비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3D프린팅 건축은 혁명이 될 수 있다”며 “케이디씨는 국내 대형 건설사와도 3D프린팅 건축 사업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설경진 기자 skj78@

## “여름방학 기다렸다” 게임 신작 러시

### 넥슨 ‘메이플스토리2’ 내일 서비스 넷마블 ‘이데아·네오위즈 ‘에스커’ 최대 성수기 앞두고 마케팅 활발

게임업계가 7월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신작들을 잇따라 출시하며 새로운 경쟁 국면에 돌입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저마다 신작 마케팅과 업데이트 등을 진행하며 시장 잡기에 나섰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에는 넥슨의 온라인게임 최대 기대작 ‘메이플스토리2’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메이플스토리2는 쿼터뷰 방식의 풀3D MMORPG 장르로 블록 모양의 맵과 귀여운 캐릭터, 다양한 미니게임 등으로 콘텐츠를 구성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런칭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였다. 업계에서는 메이플

스토리2가 현재 탑재돼 있는 온라인 게임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게임 1위 넷마블게임즈는 이달 중 온라인급 RPG 스케일을 가진 모바일 게임 신작 ‘이데아’를 출시한다. 올해 3월 출시한 레이븐과 지난달 크로노블레이드를 잇는 RPG 장르로 연속 흥행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넷마블은 이데아를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일에는 모바일 정통 무협 MMORPG ‘와호장룡’을 구글플레이에 정식 출시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온라인 액션 RPG ‘에스커’의 2차 비공개 테스트를 최근 마쳤다. 이용자들의 호평 속에 진행된 이번 테스트를 통해 출시 이후 흥행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에스커는 올 3분기 중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lio@

엑토즈게임즈는 ‘그랜드체이스M’의 사전예약 테스트를 오는 9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7-8월경 게임을 정식 출시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엑스엘게임즈는 온라인게임 ‘문명온라인’의 최종 테스트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다양한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진행한다. 와이디온라인은 ‘이카루스’에 대해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며 여름 경쟁에 뛰어 들었다. 업데이트도 활발하다. 엔씨소프트는 블럭버스터 온라인 RPG ‘아이온’과 ‘블레이드&소울’ 등에 대해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리니지’에서는 서버 통합 전장 시간의 균열·테베라스 지배전을 공개하며 유저들에게 나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주요 게임사들이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며 “또한 하반기 시장 선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신작이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lio@

## 디지털음식, 건강기능식품 시장 도전장

### ‘산삼나무’ 황칠나무 제품 판매 함박재바이오팜 지분 인수

디지털음식이 천연물 신소재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전문기업 함박재바이오팜을 인수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한다. 디지털음식은 6일 함박재바이오팜 지분 74.73%(14만 7900주)를 20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자기자본비율 35.7%에 해당하며 인수자금은 보유 현금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함박재바이오팜은 자체적으로 재배한 천연 원재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제주도 애월읍 등 전국 각지에 약 80만㎡(평방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황칠나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함박재바이오팜은 현재 ‘천연황칠’ 브랜드를 통해 부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황

칠나무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123억원, 당기순이익 31억원을 기록했다. 황칠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제주도 및 국내 서남해안에서만 자생하는 식물로 예로부터 ‘산삼나무’로 불릴 만큼 약리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주요 효능으로는 항균, 항암, 면역력 강화 등이 있으며 오래된 나무일수록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박재바이오팜은 현재 20년·10년·8년 수목 18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 25%가 황칠전액이 나오는 10년차 이상 수목이다. 디지털음식 관계자는 “이번 함박재바이오팜 인수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로 그 동안 노력해온 사업다각화에 성공했다”며 “향후 함박재바이오팜이 보유한 황칠 관련 특허를 활용해 바이오 의약품뿐 아니라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 ‘베리타스, 스마트카 사업 진출’ 보도에 주간 28.59%↑

### SP 주간동향

6월 마지막 주 분지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스탁프리미엄(www.etoday.co.kr/stockpremium)에는 종목돋보기 7건, 공시돋보기 2건 등 총 9건의 기사가 게재됐다.

시장 영향력이 가장 컸던 기사는 지난달 30일 보도된 ‘베리타스, 스마트카 사업 진출한다’였다. 이 기사는 출고 당일 주가가 8.89% 상승했으며 한 주간의 주가 상승률은 28.59%에 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투자전문업체 베리타스인베스트먼트는 종속회사 세인오토택을 통해 스마트카 사업에 진출한다. 세인오토택은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의 커넥티비티(Connectivity)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로 제품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네이비게이션에 스마트폰을 결합시킨 제품으로 이미 제품 출시가 완료됐다”며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연내 매출 발생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P동향 종목돋보기 기사 리스트 (종가기준)**

기사명	당일 주가 등락률	주간 주가 등락률
동성제약, 3조원대 중 염모제 시장...백화점·홈쇼핑 판매 채널 확대	-4.66%	10.99%
베리타스, 스마트카 사업 진출한다	8.89%	28.59%
무학, 이달 초 ‘홀온데이 핑크’ 출시...컬러리조트 인기 이어간다	1.11%	7.49%
대원미디어, 중국 유력방송국과 엔터테인먼트 ‘공’ 방영 협의 중	-0.94%	5.00%
씨엔피리온 ‘아미톡신’ 관련 화장품 - 상품 진출 위해 다수 업체 실사 중	0.82%	5.32%
오스코텍, 금성 백혈병 치료제 하반기 전임상 완료	3.07%	9.13%
씨젠, 호르몬기 질환 진단 제품 2중 유럽 추가 인증...‘이달 중순 판매 예정’	13.76%	19.28%

분자진단업체 씨젠 역시 호흡기질환 관련 신제품 2종을 이달 중순 판매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주가가 급등했다. 이투데이가 지난 3일 ‘씨젠, 호흡기 질환 진단 제품 2중 유럽 추가 인증...’이달 중순 판매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당일 주가는 13.76% 상승했다. 주간 주가 상승률도 19.28%에 달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씨젠은 호흡이 가능한 신개념의 MuDT 분자진단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들을 이달 중순 추가로 출시한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유럽 인증을 완료했으며 향후 미국 FDA(식품의약품) 인허가 획득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스코텍 역시 이투데이의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투데이는 지난 3일 오스코텍이 금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을 하반기 완료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당일 오스코텍의 주가는 3.07% 올랐으며 주간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오스코텍에 따르면 이 회사의 ‘금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를 위한 FLT-3 억제제 개발 연구과제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2차년도 지원과제에 계속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회사 측은 “올 하반기까지 전임상 실험을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에 미국 FDA에 임상시험 승인신청 (IND)을 하고 주사용 금성백혈병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학, 씨엔피리온 등의 종목도 보도 이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녹십자엠에스, 적십자사에 수혈세트 공급

### 1년간 250만개 독점

녹십자엠에스는 대한적십자사에 수혈세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급물량은 수혈세트 공동구매 단가입찰 물량 약 250만개 전량이다. 이에 따라 녹십자엠에스는 오는 2016년 6월까지 1년간 수혈세트를 대한적십자사에 독점 공급하게 된다. 수혈세트는 혈액백 내에 있는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하기 위해 사용되는 1회용 의료기기로, 도입침·여과기·접착통·연결관·수집함부·보호덮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기에는 혈액백내의 응집체나 부유물 등을 걸러주는 미세필터가 갖추어져 있어 이들에 의한 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다. 수혈

시 수혈세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원섭 녹십자엠에스 대표는 “혈액백 및 수혈세트 등의 사업분야는 이미 국내 관련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안정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십자엠에스는 진단시약 사업·혈액백 사업·혈액투석액 사업·가정용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3월말에는 모회사인 녹십자와 혈당측정기 전문회사인 녹십자메디스(옛 세라퀀메디시스)의 지분 51%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며 사업 분야 확장에 나섰다. 강인호 기자 kangih@

## 플랜티넷, KISA 단독 선정 모바일 사이버 치료 사업자

유무선인터넷 유해콘텐츠 차단서비스 전문기업인 플랜티넷은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주한 ‘모바일 등급 사이버 치료체계 확대구축’ 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작년 플랜티넷이 수주했던 시범사업의 확대구축 사업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을 대상으로 악성앱 감염 시 PUSH 메시지를 보내 감염사실을 알리고 악성앱 삭제 등 치료수단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플랜티넷은 이번 치료체계 구축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신종 악성코드, 스팸 발생 시 초기 감염확산속도를 늦추고 피해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은 플랜티넷 서비스사업본부장은 “이번 확대구축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영역을 유무선 유해콘텐츠 차단뿐만 아니라 모바일 보안관제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바일 등급 사이버 치료체계 확대구축’ 사업은 오는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문선영 기자 moon@

# 최악의 폭염에도 마음껏 시원하게!

초절전 회오리 바람으로  
유례 없는 폭염에도  
진정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 개의 바람문 조절로  
전기로 걱정까지 시원하게

## 삼성스마트에어컨 Q9000 air 3.0 PROJECT



삼성스마트에어컨 Q9000  
모델명: AF18J975WW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프론티어

## 삼성스마트에어컨 Q9000 air 3.0 PROJECT

세 개의 바람문 개별 제어로 초절전 냉방

초절전 핵심부품 인버터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 실시!

\* 인버터를 채용한 스탠드형, 벽걸이형 에어컨 전 모델 (15년 1월 1일 이후 생산분 대상이며, 중대형 에어컨은 제외)

SAMSUNG  
GLOBAL PREMIUM PARTNER

